朝鮮日報
夕刊 二十日(水)
本紙朝夕刊十二頁

英、日米兩國에 對해 現行海軍條約修正要請

自國巡洋艦、驅逐艦의 增大强化가 目標인듯

國際情勢變化理由로

【倫敦十九日發同盟】英國政府는 國際情勢의 變化를 理由로 現行海軍條約에 大修正을 企圖하고 日米兩國에 商議하기를 申請하엿다 右申請은 前後二回에 巡洋艦及驅逐艦兩艦種에 對하야 自國兵力의 增强을 意圖하고잇다고 解釋된다 但第一段의 處置로 專히 外交交涉折衝에 依하야 目的達成을 期待하고잇다 따라 倫敦條約第二十一條에스카레타條項의 援用行爲는 回避하다고 觀測하다 英國政府의 申出內容으로 解釋되는것은 左와如하다

一、英國政府는 一九三六年度에 잇서 驅逐艦十九萬噸을 保有하고 倫敦條約第十六條에 基한 保有量十五萬噸에 比하야 四萬噸을 超過하는데 條約範圍外의 各國政府가 潛水艦及水雷艇을 建造擴張하는 事實에 徵하야 以上超過噸數를 保有하려한다

一、호킨스級甲級巡洋艦프로비샤號 에핑감號 호킨스號及빈되리브號는 艦齡에 到達하야 倫敦海軍條約의 規定에 依하야 廢棄하지안흐면 아니된다 英國政府는 以上의 四隻을 乙級巡洋艦으로 保有하려한다

一、四隻中 빈되리브號는 練習艦으로 改造하고 他의 三隻에서는 七吋砲를 撤去하고 乙級巡洋艦의 定義에 基하야 六吋砲를 裝備할

一、以上三隻을 改造하야 乙級巡洋艦에 編入하는 結果 乙級巡洋艦의 保有量은 二萬九千五百噸의 增加를 招來한다 英國政府는 倫敦條約十六條에 基하야 乙級巡洋艦十九萬二千噸을 保有할수잇스나 超過噸數를 關聯하기爲하야 四千五百噸을 現乙級巡洋艦에서 武裝解除할 意思가잇다

田代新司令官天津着

【天津十九日發電通】新任北中國駐屯軍司令官 田代皖一郞中將은 十九日午前十一時三十分 長安丸으로 塘沽着 同地에서 라지에 移乘 午後四時 禮砲轟轟裡에 天津日本租界埠頭에 上陸着任하엿다

米國은 好意表示 日本側은 拒否乎

巧妙한外交로海軍再軍備進行

倫敦外交界의 觀測

【倫敦十九日發同盟】英國政府의 提議에 對하야 米國政府는 이미 友好的態度를 示唆하고잇스나 日本政府는 右提案을 拒否하야 結局 에스카레다ー條項의 適用은 免치못하리라는 觀測이 强하다 倫敦外交界에서는 英國政府의 巧妙한 外交手段이 再軍備工作을 進行할 意圖인것을 指摘하야 左의 事實을 擧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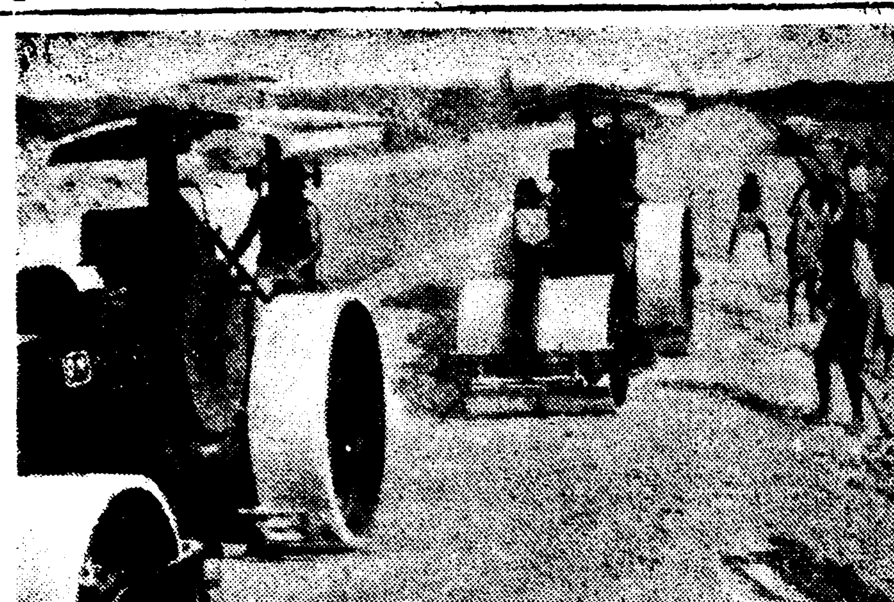
一、英國政府는 特히 精銳의 甲級巡洋艦을 保有하고 잇슴에도 不拘하고 今回艦齡에 達한 호킨스級四隻을 保有하기로 決定한것은 要컨댄 海軍再軍備工作의 表現에 不外한다

一、호킨스級四隻은 一旦 改裝하야 他艦種에 編入하드라도 必要에 應하야 何時에나 八吋砲를 搭載하면 甲級巡洋艦으로 早變할수잇는 極히 危險한 存在가될것이다

英國政府 今回의 決定은 要컨댄 簡易且經濟的인 海軍擴張案에 不外한다 日本政府는 가장 脅威를 밧는 立場에 서게되는것이라고 思惟하고 英國政府의 提案을 拒否할터이다

파씨스트全國評議會

【羅馬十九日發同盟】팟시스트全國評議會는 十九日 開會하고 民團强化에 對하야 討議한結果 武器를 遂行할수잇다 五十五才까지의 팟시스트는 國民을 全部民國軍에 編入하야 新帝國樹立後의 事態에 備키로 決定하기로하엿다



伊東阿遠征軍의 治道工作

軍事行動보다도 伊太利의 東阿遠征軍은 그 治道工事에 에너ー지의 半以上을 建設하얏다는것은 專門家들이 共認하는바로 이일은 軍事行動이 끗난 今日에도 自動車에 對한 戰爭의 形態로 繼續되고잇다、寫眞上은 砂漠에 自動車道를 建設하는 土人部隊、下는 橋梁을놋는 工兵隊의 工作

實質的軍縮會議로 發展될形勢誘致

에스카레다條項廻避는英一派의老猾한策

英覺書와日本側意向

【東京電話電通】英國政府의 驅逐艦增量保强에 關한 覺書는 十九日朝 在倫敦藤井代理大使로부터 外務省에 到達되엿슴으로 即時海軍省에 移牒하여왓다 이에 對한 回答에 關하여는 目下 海軍當局에서 硏究中인데 二十日中에는 外務當局과 妥協을 完了하고 可及的速히 外務省에서 回答을 發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右에 對한 部內의 意向을 綜合하면 左와如하다

一、英國政府는 倫敦條約의 締結當時와 事情이다르고 各國도이미 水雷艇 潛水艦을 多量으로 建造하고잇는데 軍縮會議도 失敗로 歸하엿슴으로 그 脅威를 除去하기爲함이라고 稱하야 驅逐艦補强을 申請한것인바 그러타고하면 倫敦條約의 에스카레다條項을 適用할것이다

一、英國政府가 에스카레다條項을 避한것은 該條項에 依할 時는 倫敦條約締結國인 日米도 亦是 建造하기를 主張할 處慮가잇는 點을 考慮한 結果로 英國一流의 老獪한 要請에 不外한다

一、英國이 條約에 依하야 許容된 驅逐艦의 建造噸數는 十五萬噸인데 現在 이미 計畫中의것을 加入할 時는 事實에잇서 十九萬噸에 각가운 驅逐艦을 保有하고잇스므로 此안코 또 新艦을 多量으로 保有하려하는 英國에만 有利한 自主的要請이다 그리고 英國의 提案은 日本의 潛水艦 巡洋艦等의 保有問題에만 影響이잇슬것이며 으로 此等 諸艦種의 廢棄에 對하여도 英權의 要求를 提出할것이며 또 米國도 要求가잇스리라고 觀測됨으로 英國의 提案에 依하야 補助艦全般에 關한 日英米三國의 實質的軍縮會議를 誘致할 形勢도되엿다

議會消息

貴院豫算總會 (十九日午後)

【東京電話電通】十九日午後 貴族院豫算總會는 午後一時三十八分再開 午前에 繼續하야 質疑를 續行

野村益三子(硏究) 拓務行政의 擴充强化는 國政一新을 行하는데 重要問題이다 海外事業에 對하여는 더욱 朝野의 認識을 깁히할 必要가잇다고 思하는바 首相의 所見如何

廣田首相 同感이다 外地가 發展하야 日本內地와 密接한 關涉을 生하여온 今日 拓務行政의 擴充强化及 統制를 行하지안흐면안된다

野村氏 拓務省廢止論이 잇는데 今日까지 그런생각을가진일이 잇는가 또 此를 說明한일이잇는지

廣田首相 拓務省廢止意向을가진 [illegible] 行政機構 [illegible] 이것은 國家全般의 進展에 對하야 有益한 것이되지안흐면안된다 拓務省廢止와如한 重大問題는 今後 充分檢討하지안흐면안된다

大藏公望男(公正) 日本外交는 滿洲事變後 一元化하여잇다고할수업는바가잇는드시 思惟된다 中央에서 [illegible] 決意를가지고 對外機關과 連絡하기를 切望한다

廣田首相 [illegible] 只今까지 [illegible] 將來는 [illegible] 期하려한다

大藏男 對滿投資에 對하여는 政府가 相當한 決心을하지안코면 今後할수업다고 思한다 今日 日本의 國是가 滿洲國建設助成에 잇슴으로 此를 積極的으로 進行함이 조타고 思한다

馬場藏相 滿洲의 投資에 對하야는 財政演說中에도 發表하엿거니와 財政이 許하는限 必要한것은 援助하겟다

大藏男 日本人의 滿洲移民을 奬 [illegible] 다음에 約七分間速記를 中止하 [illegible]

永田拓相 滿洲移民은 今日까지 試驗移民을 行하여왓스나 그 結果 滿洲移民을 어떠 今日에는 實行時代로 移行하게되엿다 滿洲拓殖會社에서도 可及的 만히 移民을 보내도록 準備中인바 政府는 [illegible] 하가겟다

[illegible] (同成) 此際 根本的으로 軍事計畫을 樹立하야 必要한 軍事費의 要求를세워 國民을 納得케할 必要가잇다 軍事費의 豫想이서게되면 財政一般의 豫想도서게되므로 이豫想이 서게되면 國民도 增稅를 敢히 不辭할것인바 所見如何

寺內陸相 貴下의 意見은 當然하다 우리들도 그러치안흐면 안된다고 思한다 統帥部와도 協議하야 [illegible] 하게다

[illegible] 以下速記를 中止하고 午後三時三十分休憩 同三時五十分再開

森本兵衛氏(硏究) 現內閣의 庶政一新及 行政機構改革方針에 對하야 [illegible] 잇스면 듯고십다

廣田首相 今日에 行政機構는 時代의 變遷에 伴하야 相當히 改革할 點이잇다고 思한다 余는各省의 自己擁護를 [illegible] 이아니라 國策實行에 貢獻하도록 改革하여가려한다

森氏 行政機構改革에 伴하야 財政整理도 할수잇다고 思하나 兩者가 相伴할수는업다 帝國 [illegible]

[illegible] 今日의 實情에 依하야 [illegible] 잇스나 [illegible] 이러한 [illegible] 잇다 [illegible]

森氏 內相은 地方行政 [illegible] 革하야 府縣을 統合하고 [illegible] 하는가

潮內相 行政機構改革上 地方에 [illegible] 大한일이다 이에 對하여는 地方長官의 意見도 [illegible] 하고잇다 余는 部落中을가추어 實行하여가겟다 地方制度의 改革에 對하여는 町村의 合倂도 民政 [illegible] 으로 困難하고 府縣을 擴大하는것은 一層困難하다

[illegible] 今回의 豫算에잇서 國際文化事業費는 조곰도 增額이 업다 日本의 文化事業費는 甚히 僅少한바 首相의 所見如何

廣田首相 [illegible] 自己가 [illegible] 한다 [illegible]

寺內陸相 [illegible] 感謝한다

談으로서는 目下 政府에 特殊한 事實은업다고한다

伊政府大赦斷行

新帝國建設記念日

【羅馬十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二十四日 新帝國建設及 大戰參加記念日을 期하야 大赦를 行하고 政治犯數百人을 釋放하는 同時에 國外로 亡命한 反팟쇼와 講和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報道한다

內務關係三法案만 衆院에서 難航中

廿日貴族院은마치重要法案날

會議는今後겨우四日

【東京電話電通】會期는나머지가 四日로되엿다 重要議案은 全部 貴族院에 移付하야 同院은 連日 本會議를開하고 衆議院에서 移付한 政府案의 審議에 大馬力을 내여 二十日은마치 重要法案日과가튼觀을 呈하엿다 即肥料統制 航路統制 其他를 上呈하야 委員附託으로하고 產繭處理外二件을 爲始하야 九年度總決算等을 一氣呵成으로 可決하야 玆에 法案成立은 十三件으로되엿다 一方 衆議院은 上程할 重要案이 업슴으로 本會議를開치안코 政府가 最後의 奮闘를 要할 怪文書等取締法案 退職積立金法案 總動員秘密保護法案三案의 委員會討議가 繼行될터인데 退職積立金法案의 立法行爲에 對하야 疑義를 生한結果 委員會는 一時休憩하고 再硏究하는등 자못 難航의 窮地에 陷하야 此等三案의 前途는 全然 豫測이 서지안는바 政府는 會期延長을 斷行해서까지 此를 成立식히는 決意가 잇는지 三案에 對한 運命도 오직 政府의 態度와 各派의 動向에 依하야 決定되게 되엿슴으로 衆目은 이點에 集注되어잇다

一、總動員秘密保護法案 等三案이다 그리고 右三案에 對한 各派의 態度는 모도 原案을

原案大修正하면 三法案通過

會期四日뿐으로延長은當然

【東京電話電通】今期議會에 政府에서 提出한 議案은 四十九件인데 其中 四十件은 衆議院에 九件은 貴族院에 各其提出되엿다 그리고 兩院을 通過한것은 七件으로 衆議院으로부터 貴族院에 送付된 議案은 二十八件 會期도 今後五日에 迫頭되엿는데 아즉도 十二件의 議案이 나머잇슴으로 此等審議에 關하야 考究를 進行하고잇는바 가장 愼重히 審議할 議案은

一、不穩文書等取締法案

一、退職金積立法案

米穀法案阻止次 反產側猛運動

全產側도이에積極對抗

【東京電話電通】米穀自治管理法案은 一部反對를 물리치고 十八日 衆議院을 通過하야 貴族院에 回附되엿는데 多年商權擁護를 爲하야 同法案에 反對하여온 所謂反產側에서는 이제는 貴族院에 잇서 阻止할수밧게업다하야 一兩日來 猛運動을 開始하엿다 反產側은 그간 依賴하는바는 硏究會方面에잇서서는 前陸軍政務次官 土岐章子 公正會方面에잇서서는 東久世秀雄男等이라고 傳하는데 이에 對抗하야 法案支持者인 全國產業組合側에서도 農林當局과 步調를 合하야 亦是 貴族院方面에 相當히 猛烈한 贊成運動을 行하고잇다 그리고 貴族院의 同法案特別委員會는 二十日午前十時부터 開會하고 愼重審議를 進行할터인데 原案대로 通過成立되리라고 觀測된다

鮮滿拓殖會社와 今井田總監의答辯

【東京電話同盟】衆議院의 朝鮮事業公債法案委員會에서 松尾四郎氏는 鮮滿拓殖會社設立時期及 이와 東亞勸業會社와의 關係에 關하야 質問한데 對하야 今井田政府委員으로부터 如左히 答辯하엿다

鮮滿拓殖會社設立時期는 的確히 明言할수업스나 可及的速히 하고십다 朝鮮의 移民事業은 이때까지는 東亞會社가 하고잇던것을 今年度부터 朝鮮에도 獨自의 拓殖會社를 만들어 東亞會社로부터 朝鮮의 移民事業을 引受하게되므로 따라서 今後는 滿洲朝鮮에 各各 다른 移民會社가 成立되게되엇다

北中密輸問題로

中國海關總稅務司메ー즈氏

海關員의武裝을主張

【上海十九日發同盟】海關總稅務司메ー즈氏는 十八日 北中密輸問題에 關한 中國記者의 質問에 對하야 目下의 情勢로보면 海關收入을 過去의 狀態로 復歸케하려면 中國의 海關總私巡邏船及 海關員의 武裝을 回復하는 同時에 海關과 鐵路當局과의 密接한 合作을 必要로한다고 述하엿다 最近密輸問題를 爲하야 國民政府의 對日態度는 자못 積極的으로 日本에 抗議를 提出하는 同時에 國內的으로는 朝野의 關係諸機關을 動員식혀 資料를 公表케하야 密輸의 全責任을 日本에 轉嫁하고 日本을 指目하야 마치 國際的깽가튼 昔日의 僞惡의 再現과如한 印象을 內外各方面에 與하려한다 即十八日 外交部代辯者가 塘沽協定全文을 引用하야 協定違反이라고한것이나 또는 前記메ー즈氏의 再武裝論과如한것은 모도 그表現이라고 觀察할것이다 日本駐中官憲으로서는 目下 愼重한 態度를가지고 中國側의 行動을 嚴重監視中인데 停戰地區內에 잇서서는 武裝團體의 使用은 禁止함으로 海關員이라할지라도 例外를 許치안흘것이며 萬一 中國側에서 實力的으로 敢行할 境遇에는 停戰協定第四項에 違反하는것이라하야 到底히 默過할수업다는 見解를 堅持하고잇는 模樣이다

滿鐵十年度決算

純益四千九百六十萬圓

【大連十九日發同盟】滿鐵의 十年度決算은 今回 決定하야 이미 植田駐滿大使의 諒解를 어덧스므로 今月末 佐佐木理事가 渡東하야 政府에 認可를 申請할터인데 決算槪要는 如左하다

總收入 二億五千萬圓

純益 四千九百六十萬圓

(創業以來의 最高記錄)

繰越金 (九年度四千六百四十六萬圓)

積立金 (八分配當確實範圍內에서) 一千六百萬圓 七百萬圓

純益金은 昭和七年度에 六千萬圓의 記錄이잇스나 그中 三千萬圓은 鐵道借款을 繰入한것이므로 實際記錄은 今回가 最高이다

英、歐洲各地에 옷타와協定擴張說

【倫敦十九日發同盟】英國政界財界의 有力한 方面은 目下 옷타와協定에 滿洲擴選에 依해서는 스칸디나비아兩國을 加하야 英國의 經濟圈을 歐洲로 擴張할 案이 極秘裡에 考慮되어잇다고 傳한다 問題의 옷타와協定擴大案은 濠州高等辦務官 부루스氏가 提唱한다는說이 잇스나 英自治領의 生產物을 歐洲各地에 販賣하는데 對하여는 英本國各業界에서 猛烈한 反對意見이 이러나고잇슴으로 前途는 저못多難하다

人事・集會

▲李柱燦氏(東一銀行東大門支店支配人代理) 宿患으로 市內明倫町三丁目一三三自宅에서 五月十九日下午四時半別世 發靷 五月二十三日午前六時

八面鋒

◇朝鮮事業公債委員會에서 朝鮮出版物 特히 新聞雜誌의 押收處分은 彈壓主義가 아닌가 하는 某議員의 質問에

◇林財務局長 曰 揭載禁止件數는 六十四件으로 減少되엿다고

◇또 同委員會에서 總督府의 方針은 統治를 批判하는것 까지 押收하지 안는가 하는 質問에

◇今井田總監 曰 統治를 正當히 批判하는것은 크게 歡迎한다고

◇正當의 標準이 如何?

◇朝鮮의 失業者 八萬一千으로 前年보다 一萬五千이 줄엇다고

◇失業者가 八萬이면 朝鮮은 黃金國。失業의 標準如何?

◇靈光幼稚園 園舍倒壞 園兒九名死傷。經營者의 責任如何。

大阪著名問屋案內
夏物洋服品揃
羅紗製品 卸問屋
服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公町一 石尾仁本店

諸金物 木手器具、建築金物 理髮器具、家庭金物 卸問屋
(同業者에限하야 御注文에應함)
大阪市南區安堂寺橋通一丁目
正直一本物本舖 大野合名會社

百圓資本으로文房具店을開業합니다
內外文房具問屋 イチヤ商店
四圓切手添付하야申込하는諸位에게案內書及型錄進呈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一丁目
電話船場四七七番 振替大阪三一五七三番

特約店募集
創業明治二十八年
高級別誂注文 品質은責任保證付
◇見本進呈(申込은大阪에)
二十圓부터 三十五圓까지 別誂注文合服折衿三揃
十八圓부터 三十圓까지 別誂注文 夏服折衿上下
上衣七圓半・ズボン二圓半
全鮮地方에出張員의便宜가잇사오니多少를不拘하시고、만히愛顧하야주십시요
大阪市谷町一ノ一一四 正司憲商店 京城府櫻井町一ノ三〇 京城支店

貸切店은普通問屋과달니서各製造家로부터品質一等品을一手引受하야安價로送付하여드림
莫大小、雜貨、各種二等品 專門卸
物
格安品 メリヤス
店名採印者에限 商品目錄進呈
名古屋市西區則武町牛島
梅村新太郎商店
振替名古屋二三九四七番

萬年筆의大革命
놀랄만한 タジマ萬年筆
一金五十錢 送料共五十三錢(付屬品代)
エボナイト軸・ペン特許耐酸
名古屋市熱田傳馬町一
田島盛松堂
電話南二七三七番 振替名古屋一八〇番
頭山滿大先生御推賞
萬年筆이奢侈品이라는것은過去의일로時代에即한民衆的으로한것이タジマ萬年筆이다
宮中顧問官貴族院議員子爵 三室戶閣下御推賞
參圓以下의萬年筆은使用할수업다고생각하든것이本品의出現으로나의지금까지의생각이잘못이엿다는것을確實히알엇다
高田郵便局長殿御推賞
局員이今日까지タジマ萬年筆을愛用하야使用한結果一個五十錢은너무싸다背通쓰는분이면五個年以上使用할수잇다는것을證明합니다

廣吉マッチ
廣告マッチ
新奇한意匠、美麗한印刷、納品迅速、安心되는本社品。
美麗한趣味의マッチ레ー베르蒐集
一組三十錢(二錢切手十五枚)
(御趣味大第萬廣入カタログ進呈)
名古屋市東區石町二
富士紙工社
電話東二六七九番 振替名古屋一九〇四八

1936式
여름簡易服이되엿습니다
에프롱사롱홈綿布加工品一切
製造安價品豐富、仕入前에꼭一次照會하라(商報呈上)
織物出賣 布團類メリヤス雜貨 利用製品
格安品 卸商
名古屋市西區新柳町一
河井商店
振替名古屋三二五二一

外科 肺胃腸病 小兒病 皮膚科
京城府樂園町一四〇 (赤十字病院近傍)
天日醫院
院長 李重樂
電光③二〇四七番

發賣元 株式會社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京城驛前
電話本局長一〇〇三番
型錄은請求하시면 即時拜送합니다

力武式製粉機
農林省比較審査甲位入選
取扱簡易能率多大
各府縣御指定

호ー쿠샛도式

얀마ー石油發動機
一馬力半以上 十五馬力
横型 十九吋大小各種
얀마ー바ー지칼폼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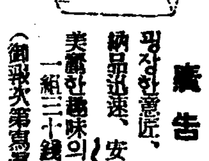
三大特徵 揚水量倍大 所要馬力僅少 價格低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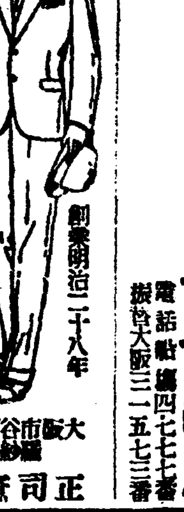
口徑二吋以上
얀마ー渦卷폼푸
얀마ー폼푸를
今年도 時期가되엿습니다 揚水와排水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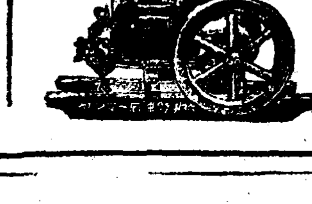
橫型 三馬力以上十五馬力
專賣特許 모든點으로서 絕對信用 追從을不許할燃料費소 (每時一馬力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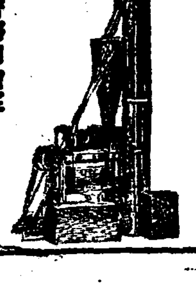
十馬力以上 百馬力
얀마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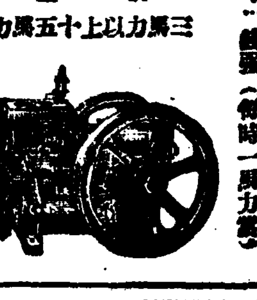
原動機와作業機는
우에살핀 얀마ー에限함
얀마ー 單기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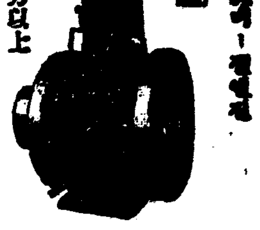












再燃된電車賃金區域撤廢運動
麻浦一帶住民蹶起 各方面으로飛檄
京電의非公益的態度를指摘 目的貫徹에邁進

해마다 불가울로 발전해가는 경성의 가장절실한 당면문제로 대중교통기관인 전차임금구역을 철폐하여야할것은 년래의 문제로 일반부민들이 열망하여오든바이요 더구나 사업이년부터 행정구역이 확장되면서부터 그필요가 일층긴절하야 경성부당국으로부터도 경성전기회사당국에 임금구역철폐에대한 요망서까지 제출한바 잇섯스나 경성전기회사로서는 용이히 이에응할만한 빗치보이지아니하며 압흐로는부득이 경성전기회사를 상대로경성부민의 민중적운동이 전개될것으로보이엇는데 이문제에대하야가장 리해관계가 큰교외과전차지선주민들은 변전에 설치하엿든 임금구역철폐기성회의 활동을 부활시키고맥이 농후하게되여 제일착으로 마포(麻浦)방면의 주민유지들이 봉화를들고 왕십리(往十里)청량리(淸凉里)방면 주민들에게 격을날리어 운동의 보조를 일치하는동시에 전시민에게 전면적운동을 이르킬필요를 부르짓게 되엿다 현재 전차교통이란것은 시민교통기관으로서는 유일한 기관이 되어잇는것이 일개 영업회사의 손에들어 잇기때문에 시민의 리익과 대경성의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것은 하로도 참지못할중대한 문제로 되어잇다、즉 임금관계로보면 교외선에는 시내선과 련다라 탈때에는 팔전이고 교외선만 탈때에는 오전이 되어잇서서 일반의 리용상불편은 물론 불합리한 부담의 과중이만히 생긴다、그래서 현재 행정구역으로 동일한 구역이되여잇스면서도 교통상으로는 시내와 시외가 종래대로 엄연히 구별되여잇서서 신편입구역의발전은 자연히 저해되고 잇는테 될수잇스면 전구역을 단일화하는것이 리상이 겟지만은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 한도로라도 시내선과 교외선을 련락하야한구역으로할 한개를 확장하여서라도 어떤새로운 임금구역제도를만들어야 되겟다는것이 금번 임금구역철폐운동의 안목이 되여잇서서 경성전기회사당국의반성을구하는바이다 경전은 경성의편괴사업이란것이 완전히 독점되여잇서 업무상으로도 큰보호를바드며 전시민때문에 리를보고 번영하여가고잇는만큼 시민의리익을 위하여 좀더공익적태도를취하여야 할것이라는 일반의희망이 농후한데 혼자 완강한태도를 가지고 잇슴에 부민의 비난을밧고잇는데 금후 전시민의민중적요망에대하야 어떤태도를 취할런지 주목되고잇다

現場悽慘 靈光事件後報

【靈光】 전남령광유치원 (靈光幼稚園)의 임시원사가 도괴되어 원아륙명즉사 십일명의 중경상자를 내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제 그자세한것을 조사한바에 의하건데 요즘 동유치원원사가 훼손이심하야 이를수리할차로 림시로 동유치원원사와 연접하야잇는 야소교후당에 원아를수용하고 수업하더중 십팔일 오전업한시사십오분에 돌연 평연한소리와 함께 동교회당의 대들보가 불어져 내리며 동시에 건물의 반분이 칼로 처낸듯이 도괴되며 그안에 서수업중이던 원아 사십오명중 미처 피할길을 찾지못한 원아십칠명이 훼속에파무처바되어 바로소방조가 출동하야 일반시민과현력 구조에 착수하얏스나 원래 사고가 급하얏고 동건물이 기와집이던관계로 결국 륙명의즉사 십일명의 중경상자를내어현장은 실로 처참한피바다를이루고 급변에 달려온 원아부모의우름소리며 각각으로 파헤처나오는 무참한 원아의시체에 모혀든군중은 모도눈물가리고 오렬하는치못하얏다는바 사상자씨명은아래와갓다

▲即死 안봉환(安奉煥)(男七) 김순연(金舜蓮)(男七) 신숙정(申淑貞)(女六) 신순직(申順植)(男九) 서명호(徐明鎬)(男七) 편무귀(片武貴)(男七) ◆重傷 조혜섭(曺惠燮)(女五) 계경순(桂敬順)(女七) 편무흥(片武興)(男六) 김순례(金順禮)(女六) 이밧게 경상자는 칠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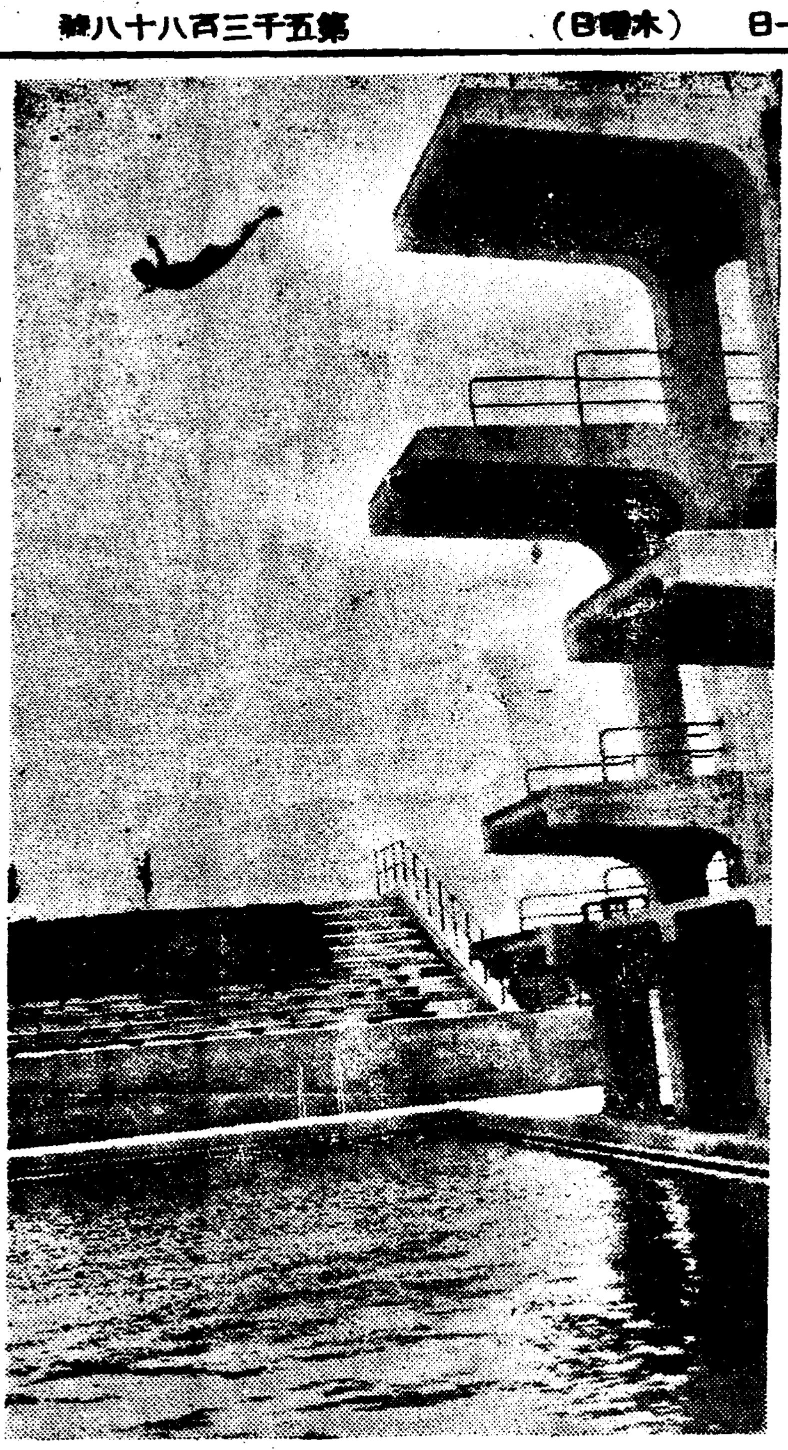
이돌변에 경악한 령광의전시는 참화당초한 비참한 기분에 지배되어 잇시는 각관공청 각상점까지 휴업상태에 빠저잇던중 동일오후한시에 이르러 각계의유지 이십여명이 유치원에 모혀어 발기한결과 로인당수 김(老人堂首金)씨를 위원장으로 장의집행위원 조병모씨외 구인을선정하야 조난아동합동장의(遭難兒童合同葬儀)를 십구일정오에 집행하얏다한다 (사진은 현장의참경)

前"엠엘"黨幹部 朴洛鍾等檢擧
秘密裡에取調開始

시내동대문서 고등계(東大門署高等係)에서는 십팔일밤에전『엠엘당』간부 박락종(朴洛鍾)(三七)과 전룡산공작사건(龍山工作事件)에 관련하엿든 강아그나아(一名姜貞熙)(三)외오륙명 남녀를 검거하고 비밀리에 취조를계속중이나 사건의내용은 극비에부침으로 알수업다

架空土地詐欺團
虛僞文書꿈여서 賣買交涉中綻露
本町署에서探知코共犯者引致 各署에手配首犯嚴探

시내 본정서 사법계에서는 십구일아침마산부(馬山府) 장모(張某)와 시내 모공업소장 강모(姜某)를 소환인치하야 취조중 아연 긴장하야 형사대를 각방면에 총출동식혀 대활동중이라하는데 이제 그사건의 내용을 탐문하면 현재 미체포중에잇는 시내 미근정(渼芹町) 주모(周某)는 전기장모외 여러사람들과 결탁하야 성북정(城北町)에 가공(架空)의 토지 십마평을 만드러가지고 동경시(東京市)일본인 무외 여러사람들에게서 약십만원이란 대금을 사긔하려다가 그만 발각된모양갓다하는데 취조에따라 사건은 점점확대할 념려가잇스며 근래에드문 대사긔사건이라하야 그서에서는 시내 각서에 수배하야 전기수범 주모를 엄중수사중이라한다



▼시절은 왓다! 潑剌●人魚의飛躍 (오늘 京城運動場풀에서)

元寶山附近에 反滿軍出現

【新義州】 십팔일 오전열한시반쯤 안동현보사취룡가(安東縣沙河鎭) 원보산(元寶山)림씨(林氏)방에 거동불명의 부마누군세명이 침입하야 직을 보고잇는로파를 결박하고 금품다수를 강탈하야 가지고 사하진(沙河鎭)방면으로 도주하얏다는 급보를 바든 안동현경찰청에서는 청원을 총출동식혀 방금 추격하는 중이라한다

共軍十二名射殺
木仙頭子溝의激戰

【新義州】 중안현(寬安縣)경무국 동무반장 개천(皆川)지도관이하 칠십명은 지난십칠일 오전여덟시 통원고려하자(高力河子)를출발하야 전진하는중 제칠구화전자(第七區花甸子)에서 왕봉각(王鳳閣)의 부하 한명을 맛나사살하고 도라오든길에 그날오후 여섯시쯤에 동구목선두자구(木仙頭子溝)에서 공산군 제륙단 삼백여명을 맛나 교전세시간에 이르러 공산군 열두명을 사살하얏다고한다

乃妻搜査願

내마누라를 피여갓스니 차저주랴어면가를 시요하는 수사원하장이 동대문서(東大門署)에들어왓다─시내 의선정(義善町)백십삼번지거주 김삼(金三)(三○)은 구차한살림을 도아려는 생각으로 지난사월초순부터 그의안해 전금순(全金順)(二五)을 시내본정(本町)김상건점에 보내어두엇든바 이달처음에어떤 불량자에게피여간채로 행방불명이되엿다는것으로 그는 설상가상의 눈물을흘리고잇다고한다

結核豫防週間
【豫防知識宣傳、無料健康相談】

조선결핵예방협회에서는오는이십륙 이십칠 이십팔 삼일동안전조선적으로 결핵예방주간(結核豫防週間)으로 정하야 대대적으로 그예방지식을 보급시키기로되엿는데 경성에서는 무료건강상의(無料健康相談)와 선전탑(宣傳塔)、포스터、선전삐라、전람회 영화 연극라디오방송 강연등으로 굉장히예방선전사업을 실시할터이라한다

少年教護法制定 感化院을增設
不良少年少女善導策

총독부에서는 명년도부터 조선에 소년교호법(少年敎護法)을 제정하야 실시하고저 방금사회과에서 구체적조사연구를 하는중이라는데 이법령의초안과 또실시에관한준비는 명년도예산편성기인팔월말까지에는 대체 마칠터이라한다

그런데 소년교호법의 실시를 보면 현재관립감화원(感化院)이 경성에 하나잇슬뿐이므로 당분간은 평양(平壤)대구(大邱)함흥(咸興)광주(光州)등 삼사처에국립감화원을 더설치하야 불량소년소녀를 이에수용케하거나 또는 도의재원이 용납할수잇스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야 각도에 소년교호원을 설치하게될터이다 그러나 이두가지 계획안중에서 소년교호원안에 대하야는 각도의 불량소년수에 차이가 만흔것과 또지방비재원이 빈약함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도사실상 신설하야 유지하기가곤난한상태에잇다 그러므로 결국중요대도시삼사처에 관립감화원을 증설하게될것이라는데 명년도예산에 요구액이 승인되다면 사회적의미에서 다년요망하든 소년교호법은 실시될터이라한다

돈버리왓다가 人肉市場에……
貧農處女警察에呼訴

인육시장에서 헤매이는 가련한 녀인의S·O·S─본적을대구부 봉산정(大邱府鳳山町)에둔김출근(金出勤)(一九)은 수일전어떤젊은 사나이가 시골집에와서 서울에 돈버리조흔곳이 잇스니 가자고 꾀이는바람에 양친의 승락을어더 이름모를 사람과함께 상경하엿든바 그자는 모른주거이 전기김출근을 시내서사헌정(西四軒町)중흥루(中興樓)라는 유각에전채 이백칠십원으로 파라먹고 그만 종적을감추어버려 큰기대를 가지고 서울까지 왓든 김출근은 의외에 자기몸이인육시장에 사로잡히게된것을 깨닷고 이십일 아침 본정서에구원을 호소한것이라는데 그서에서는 이와가티 농촌의 빈궁을 기화로 농촌부녀를 유괴하는악배들을 철저히 단속하기위하야 이름모를 그자를 엄중수사중이라한다

舞臺는"塔洞公園"
싀골사람脅迫劇一幕
被害者告發로惡黨一網打盡

탑골공원을 근거로 삼고 싀골사람을 협박하야 돈을 뺏앗는무리들─주소부정한 박수룡(朴洙龍)(二二)원성진(元聖鎭)(二×) 신금동(申金東)(二七)등 네명은 십구일 오후한시에 탑골공원에서 경기도시흥군수암면화정리(始興郡秀岩面花井里)사는 김은동(金銀童)(二一)을맛나서 자긔들은 동대문밧 견직회사(絹織會社)의 직공조장 감독 혹은 직공들이라하고그공장으로 취직을 소개할터이나 그 소개비로 돈 삼원을 내라고 협박하엿다 김은동은 가진돈이 일원밧게업다하면서 내여준즉 더내여노치안흐면 머리를 깨트려 버릴터이라고 더욱 위협함으로 그는 친구에게 꾸어가지고 오마하고 공원밧그로뛰여나가서 파출소에 신고하야순사가 사복으로출동하야 네명전부를 붓잡아다가 종로경찰서에서 엄중히취조하는중이다

遭難機行方不明 總督府

海軍御用係發表‖지난십사일라진(羅津)남방백마일의 해상에서 행방불명이된 해군긔에대하야서는 해상으로는 해안일대에 수사망을 펴고수사하엿는바 십구일 아침까지 지하등의 소식이업다 혹은륙상방면에서 조난당하자 안혓는가 하는의심도 잇슴으로 강원도(江原道) 경긔도(京畿道)이남지방에 대하야 그수사를의뢰하엿다

揮發油等萬罐燒盡
隣接地엔大會社倉庫櫛比로大混雜
仁川東洋商事倉庫에서

【仁川支局二十日午後零時十五分電話】 이십일오전열시반경 인천부 만석정(萬石町)에잇는 경성남대문통에 본점을둔 동양상사주식회사(東洋商事株式會社)소유창고에서 불이나서 방금팽장하다고잇는중인데 이창고안에는소주일만오천상자와『모빌-』기름십천상자와 휘발유이천상자 시가칠마원어치 물품이싸혀잇고 그부근에는 늑라이싱센석유회사 창고와 종연방직공장외 대건물들이잇서 방금극히 위험한중에잇다 현재타고잇는 물품은 모다 인화성이 강한 위험품임으로소방조도 손을대이지못하고 그대로두고 보며잇는중이다 불난원인은 그창고안에 까솔린탕크에 뚤러진 구멍을 때이다가 까솔린에 인화된것으로 아직진화될 가망은보이지안는다

【仁川支局二十日午後二時電話】 불은계속하야 맹렬히타서 창고안에싸혓든 휘발유 오천상자와 석유삼천상자와 기계유와 경유 일천오백상자를태우고 간신히진화하엿는데 이창고는 건물오천원 물품이만오천원외 보험에드러잇다한다

惡德地主
仁川署에서調査

【仁川】 팽창도시와 공업도시로 비약적 발전을보이고잇는 인천에는 근일인구가 격증하고잇서 차지차가(借地借家)인이 격증하고잇서 이를기회로 부정리득을 폐하고잇는 악덕자본주가 허다함으로 마침내 인천서보안계에서는 철저조사하야 이에대한여러가지 폐단을업새고자 방금엄중조사중이라한다

京城消防署 二十八名增員

경성부의 구역확장에따르는 경성소방서(京城消防署)의 정원은 십팔일부로 제래일백십팔명에 이십팔명의 증원을하엿다 우증원은 지금까지 일곱개의 소방조를가지고잇든 신편구역에 배치하고 금년도는 영등포(永登浦)에 두명식을 배치하도록 결정되어잇는데 래년도부터는 구부외(府外)소방조전부를 개조하야 소방서원으로서 그편성내용을 충실히할 예정이라한다

德源地方饑饉

【元山】 함남 덕원군하에 잇는 풍상、풍하(豐上、豐下)량면은산면(山面)지대로서 수년간 계속한 흉작의 쓰라림을 밧고 오든바 작년은 비교적농작이 조왓다하건만 역시 산간에 틈유한 냉해(冷害)로 말미암아 수확이 적엇고 상당한 수확이잇섯다할지라도 변상변계속한 흉작시에 잡혀진 부채를 갑고나니 수중에남은것은 살아갈거정과 한숨만이여다고한다。그리하야 그들 극빈자 이천오백여호일만오천여명은 작동이래 제탄(製炭)과 시목(柴木)을 채취하야겨우 금춘까지 연명하여왓스나한 잇든 사업이라 오래계속할수업서 요지음 그조차 못하고매일 남녀로소가 산야에 나가서 초근과목피를 캐여다가 고리의장리(長利)를내여온 강냉이(玉蜀黍)에 석거서 죽도아니고 밥도 아닌것을 만들어 먹고잇다는데 삼수갑산등지의 냉해민은 조속지혈이나마 당국의 구제를밧는 은전을 입고잇스되 그들에게는 그러한 구제의손조차업서 주림에 떨고잇다고한다。

天氣豫報

槪況 七四九粍의 低氣壓은 黃海와 朝鮮海峽에잇서서 모다東으로進行하고잇다 滿洲와 西日本은 비가오고 鮮內는 曇雨가심하다 高氣壓은 千島에 七六六粍 東古에 七六○粍의것이잇다

豫報 今夜는흐리고 來日은 개이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七度四
昨日最低 二二度五
今朝最低 九度一
今日正午 一八度二

運動競技

專門野球大會 廿三日부터開催

朝鮮專門學校 體育聯盟第一部野球大會는 來廿三日 午後零時半부터 醫專對高工戰으로 京城球場에서 開幕될터인데 對陣은다음과가티決定되엿다한다

◇廿三日(第一回戰)A醫專對高工(零時半)B高農對法專(同四時)
◇廿四日(準決勝戰) 齒專對A勝者(零時半)高商對B勝者(同四時)
◇決勝戰은 廿五日午後四時에 擧行하다

京都朝鮮留學生 親睦庭球大會 六月七日京都에서

【京都】 京都朝鮮留學生學友會主催의 親睦庭球大會는 來六月七日午前九時부터 同志社大學庭球코-트에서 開催하기로되엿는데 第一部는對校戰(大學高專部及中等部)과 第二部에는 個人戰 第三部는女子個人戰으로 나누어잇다고한다

京城運動場풀 始泳式擧行

京城運動場內에잇는 水泳場 始泳式은 豫定과가티 二十日午前十一時半부터 式順를 마치고始泳과다이빙競技가 잇슨後 同零時半에 散會하엿다(寫眞은 同始泳光景)

體協理事會에서 올림픽選手歡迎

朝鮮體育協會에서는 來二十日午後一時부터 總督府 第三會議室에서 理事會를 開催하고

一、全朝鮮陸聯及 軟式庭球聯盟補助增額의件
一、올림픽日本選手 京城下車를機會로 歡迎會開催의件
一、朝鮮神宮競技日程統制의件

其他二件을 付議決定할터이라고한다

平壤中等學校 野球聯盟結成 春秋二回리그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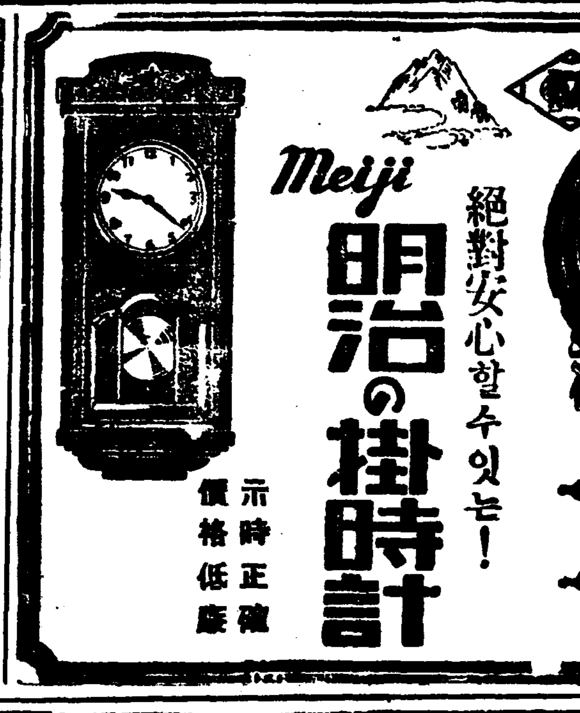
【平壤】 光成高普、平壤高普、平壤中等、平壤商業、鎭南浦商工等 五個校에서는 平壤中等學校野球聯盟을 結成한後 每年春秋二回의리-그戰을 開催하여 球技의向上을 圖謀하기로 되엿는데 結成後第一回리-그戰은 六月十三日부터 二十八日까지의사이에 開催키로되엿다

朝報案內

外務社員採用 …… 共濟無盡株式會社

住宅 …… 江邊 三角地裏 光熙町 元町一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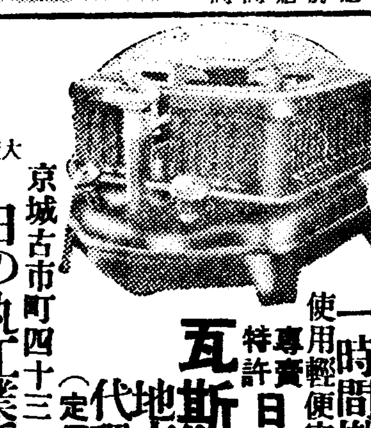
恩給 …… 特色은照會回答 京城府授恩町一六○ 鄭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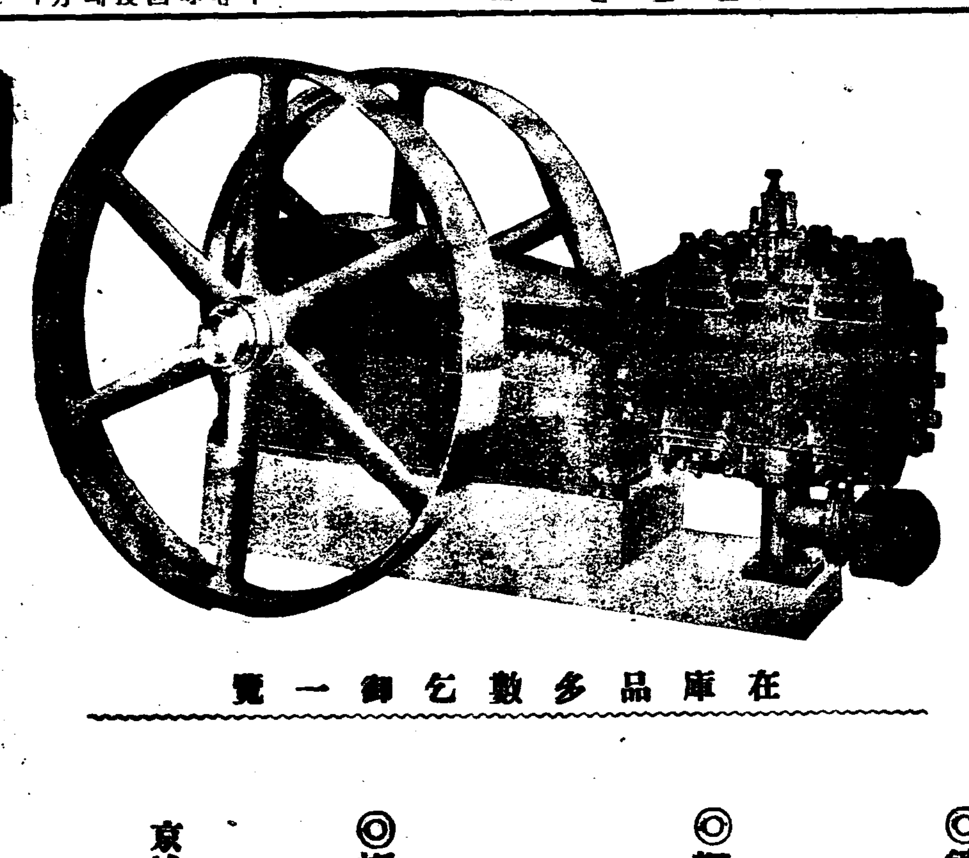


絶對安心할수잇는! 明治の掛時計 示時正確 價格低廉

醫師試驗準備書 …… 京城府新設町 …… 春興醫院醫學通信學校

私設 瓦斯會社實現! 一時間燃料費僅參錢 使用輕便完全無比한此器 專賣特許日の丸號 瓦斯發生器出現 地方特約代理店募集中 (定價一臺拾八圓) 京城古市町四十三 大阪日の丸工業所京城營業所 電本局三六九四番 地方注文歡迎 (照會次第案內書送呈) 平安北道地方照會는宜川邑 平北總代理店 新昌商會 電話二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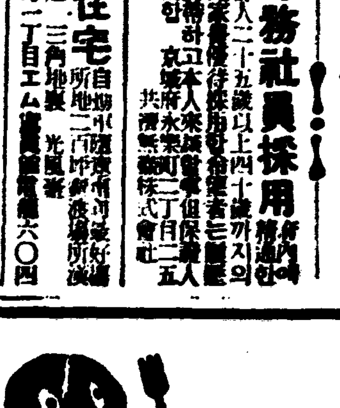


在庫品多數乞御一覽

◎鑛山機械部 各種空氣壓搾機 鑿岩機(京城在庫豊富) 各種撰鑛、精鍊機械 設計製作
◎都市工業部 上水道急速濾過裝置 (鮮內施工二十三個所) 上水下水用鹽素滅菌機 (鮮內納入臺數四十臺)
◎煖冷房建築材料部 房煖房設計施工 冷凍冷藏機械販賣
京城府本町一丁目旭ビル 小林工業事務所 電話本局三九五九番

남자나 녀자나 男女とも 독을밧은갓치생각되면 毒を受けたと思はゞ 독소환을잡수시라 毒掃丸を召しされ 기분좃케체독을 氣分よく體毒を 배설함 排泄す 약점에잇슴 藥店にあり 약가 이십전 오십전 일원 이원 代二十錢五十錢一圓二圓

!는잇고나낫히니년다 몸일優一第여다노말야이것이
クッチンラン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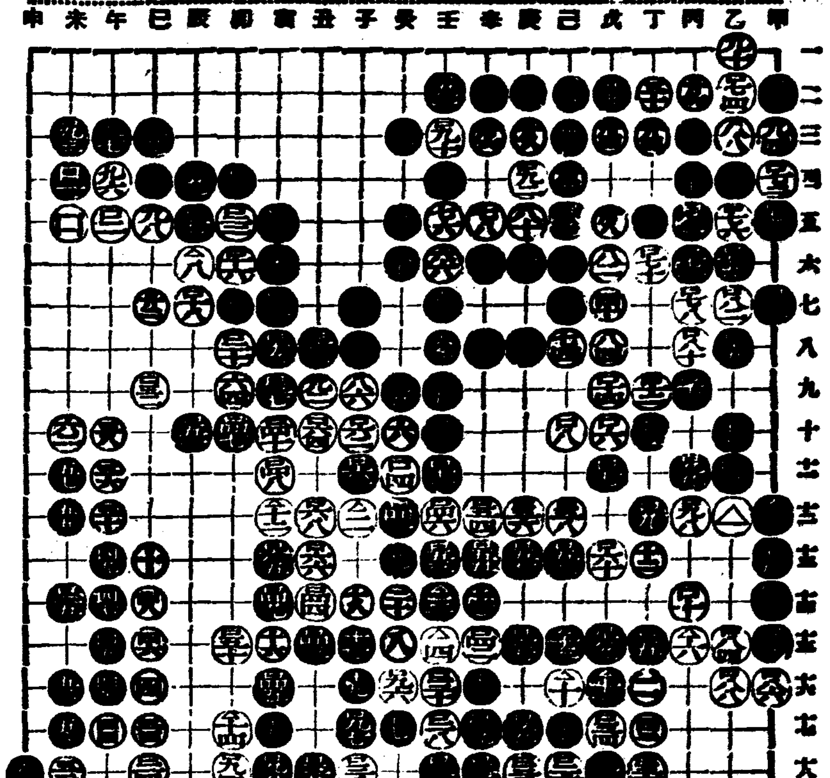
下虫劑 マクニン 마구닌 榮養은 배人속에寄生虫이 잘먹엇습니다

初夏의 女性に에 捧ぐ함
三大特長
一、原料嚴選의良心的白粉!
二、잘밧고、잘퍼서땀에밀니지안는
三、자연스러운美에個性을살니는
華麗한新裝、魅力의流行色
肌色、濃肌色、오—클、白色
粉各色二五錢、水各色三〇錢
初夏の潑剌とした
表情化粧
洗顔하신뒤에レートクレーム로輕하게맛사지—합니다
다음에レート粉白粉을가벼웁게차분차분두들겨、골고루이바릅니다
レート연지를어서부드레발너血色이조흔靑春色을맨듭니다
レート입술연지、眉墨으로그리면流行의表情化粧이完成하게됨니다
レート粉白粉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3—

白 丁壹奉
黑先 任佑植



●一九三 未의三
○一九四 卯의十八
●一九五 寅의十八
○一九六 癸의十六
●一九七 子의十七
○一九八 丙의十二
●一九九 丙의十一
○二〇〇 乙의十二
●二〇一 甲의十二
○二〇二 子의十二
●二〇三 壬의十四
○二〇四 壬의十五
●二〇五 丁의十五
○二〇六 丙의十五
●二〇七 辰의五
○二〇八 辰의六
●二〇九 辰의四
○二一〇 己의十六
●二一一 戊의十六
○二一二 寅의十二
●二一三 己의十五
○二一四 卯의十七

蔡極文氏評曰 黑白雙方이 旣已終盤하니 末端收拾뿐이다 黑은 未의三 辰의五가 最要하고 白은 卯의十七八이 其次가된다 白己의十六은 自身안을 不要한 所用이다 浪費一點此 後悔가안일가 二二路에 不過하나 計月立場이라 宜加緊愼이어다

또한가지느른 새로운화류ㅅ병

아직은이름도작정안된 고약스런병이다

오늘날까지 성병(性病)、즉화류병이라고 치는것은 매독、림질 연증하감(軟性下疳)이세가지 엿는데 지금에와서는 이세가지병의 어느편에도 속하지안는 한가지새로운 성병이 발견되엇습니다。이것은 일종의 서계선(鼠蹊線)이 부어오르는 병으로 현대의학에의 한수수꺽끼가 되어잇는것인데 병의이름도 아직확정되지못햇고 그저 제사성병(第四性病)이나、신성병(新性病)이나하는 이름으로부르고잇습니다

◇

이병은 물론 옛날부터 잇섯든것입니다만 기왕부터 성병이라고 불리내려오든 먼저말한세가지병과는 증상이 매우달르기때문에 세계의학자들이 이삼년전부터 연구한결과 최근에 와서겨우 그병원체(病原體)를발견하게되엇습니다 일본안에서는 이병이 만치안타고햇습니다만 최근에 조사한바에의하면 의외로상당한 수효에달해서 작년일년중 일본내지의어떤 병원한군데서 취급한환자를 조사해본결과 가래톳(소위橫痃)환자팔백팔십구명중 삼백륙십명은 신성병환자엿다합니다

◇

이병이 다른화류병과 증상이다른점은 매독은 감념되자리가아푸지를 안습니다만 신성병은그자리가아푸고연성하감이나 림질은 빨가케부어올라 아푸기도할뿐더러 곪습니다만 신성병은발가케되지를안코 붓는데 그부은림파선(淋巴腺)을수술해서 끄내드라도 그자리가작구작구자라래톳처럼 치료를 해서는 반년이나 일년을가도 낫지를 안는아주 괴악스런 병입니다。

◇

즉 그 자리가 곪겨 터저도 터지지를안코 삭어업서지지도안코 발가케 성나는일도업서 그저 부어서는 알코기만하는 병인데 외쪽 서계림파선이 붓기시작하면 얼마 안가서 바른쪽이 마저부어올라 거름을 못것게되고 전신에 열이 생기며 머리가 몹시 알르게됩니다。

◇

이병의 원인은 두말할것업시 불결한 성교로 인해서 전염되는것이지만 또는 눈에 잘 안보이는 아주 적은 손찌자리(擦過傷)로부터 독이 드러가서 전염되는수도 잇습니다。남녀간에 이병이 전염되면 맨처음 국부에가서 조고만수포(水泡)처럼된 헌데가생겻다가 얼마안가서 이것이 업서진다음 먼저말한바 가래톳이되어버립니다。치료법은 여러가지를 시험하는 모양이나 어느한가지 신통치를못한 모양입니다。

최근의방법으로 일퍼ㅣ센트의석탄산수(石炭酸水)를 부어오른림파선속으로 일그람식 하루걸러식 주사하는것이 비교적효성적이엇다한니다。

短篇小說

灰色街【九】

李石薰 作
申哲秀 畫

저번뽁로ㅣ자에서 발갓도록 몸시술을 먹어 더욱 몸을해친 사헌이가 여러날동안 꼭박혀잇다가 사려시간렴해서 사로차저와다。광대뼈가 더엉성하게 내민것갓고 더키진 두룩두룩한눈이 병적으로 빤득이엇다 어느듯봄기운이 지피저서 날들은 이미겨울옷을 죄다 버서버렷는대 사헌군은 아직도 겨우내입던 검정솜두루마기에 머리를 덥수룩하니 하고 떼무든 허소프트를 비스듬이 썻다는것、다도 더떠러지지안케 올려노코잇섯다。그용모가 양기로운 봄날이매 유난히 허줄해보엿다 친척집에 식객비슷하게잇는 사헌이의 사정이 아모설명이 업슬지라도 나에게는 딱하게생각되엿다。

『몸이 괴롭잔우?』

『늘 그런걸요 멀』

『저번날 술이좃과햇서서』

『이왕 먹는것이면 끈드레 만드레 최도록먹어야 먹은것갓지』

『그려찬으면 아예 입에대지두 말거나』

『몸을좀 돌보슈』

『내게는 하이카라수작이야요 하는건 돌보약이나먹구 전지요양이나 하구십지안켓소만은 밥벌어먹자 생활이 피이지도안는원고를 작구써야하는구려……나두 무슨직업이든 직업을하나 붓드러야겟서요』

그리고는안주머니에서 담배를 끄내드니 한대를 부처물고 파라연기를 긴한숨과함께 훅—내뿜엇다。대—체 취직이란 것도 이회색의도시에서는 너무나 어려운일이기때문에 나는 그의침울한얼골을 바라보며 잠자코잇섯다。문득나는 시인R군을 생각햇다。R군은얼마전에 어떤상사회사(商事會社)의 월급자리를 동댕이치고 나온것이엇다

『한달에 삼십오원이란 싼월급을주면서 사람을 소돼지부려먹듯하는구려 아침아홉시출근에 오후여섯시퇴근——기일여섯시퇴근이라면 헤식빨이고 밥일까지 해주고나와야 조아하지 제시간에나오면 부장여석이 낫작을찌프리죠 그러면서두 한달에 공임이 하로빠거업스니 삐여날재사가 업서요 차라리 악버리레먹는게낫지 어건그래두 무슨큰돈버리랍시구 번적주구레하게 양복입어야지 교제해야지 머니머니하고 제하지——날는견저두업서요』

R군은언젠가 이래케 외기헌양하야 그만두겟노라하더니 마춤내 반년도못대기고 회사를나오고마것이엇다 나는 사헌이와 R군의이야기를하며그가장차 무엇으로 호구를 하려하는지 궁금스러웟다。

『하여튼 좋래해 날좋은 그런자리라두 못드려가서 야단들인데』

『한주씨 그자리에 나좀 못드려갈까요 나는 밤일까지해주구한달에한번도 안놀죠 가끔뎀으루 밤을새두 무방허죠이만한 유리한조건이면 삼십오원짜리회사선 얼른 모서갈게아니우? 어떠소』

『하하……히니꾸상가당허군』

『천만에 『히니꾸(皮肉)』지나도면 조케요 정말 어드던지 힘좀써주슈』

사헌군은 내가 무슨힘이 잇겟다고 나더러 이런부탁을 정성껏할까 연전에도 그의부탁을 밧고 내가아는 사립학교 교원자리를 몰색해본일이 잇섯다。마춤 내안해가 댕기다가 병으로 사직한 학교를 알어보니까 거기서는 훈도(訓導)자격이잇서야한대서 트러젓고、또한군데는 강습소비슷한 학교인데 한달에 이십원월급이래서 그건 이편에서 퉁겨버렷다。넘고처지고 혼사자리 구하기만치나 힘든것이 취직이엇다。이말을하고 안될것가지구 선뜻 마터버리기도 쑥스러운일 가태서 사양햇더니 그래도 해보라는 것이므로 그럼 잡지출판을 하는 S사나 H사를 알어 보마하엿다。그러니까 그는 약간 안심이 되는지 퉁이라도 하고 십허진 모양이다。주머니에서 십전동화 한푼을 끄내서

『자 돈접이나 한번처 봅시다 대일본이나오면 트러지고、오전이나오면 되는거요』

『그래』

사헌군은 의자에안즌채로 십전백동화를 뱅그르돌리면서 허공으로 올려튀첫다。돈은 빤득빤득 뱅뱅돌이를 하면서 허공으로 올려솟앗다가똘롱 금속성울내며 방바닥에 떠러젓다。그리고는 불규측한 원을 뱅뱅그리다가방우석에 머저버렷다 와나는 얼른이러서서 집어보앗다。『오전』이나타낫섯다。

『됏다 됏서』

『하하하……』

라디오

二十日(水曜)

◇午後六時三〇分—하ㅣ모니카合奏 一、校歌…五十嵐作曲 二、歡島行進曲…瀨戶口作曲 三、에스잔틔나월즈…월트토이펠作曲 四、언덕의黃昏…申孝彭編曲 五、瀨戶內海의風景…福島作曲 六、쉬카고美人…수ㅣ자作曲
京城第一高普하ㅣ모니카밴드 指揮 申孝彭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濟解說 金鐸文
◇同八時 講演『經濟生活의意義』 尹行重
◇同八時三〇分 赤壁歌外 一、赤壁歌 二、執杖歌 全光泰 柳開東
◇同八時五〇分 (東) 管絃樂 日比谷公會堂에서中繼—一六八回定期演奏 一、交響曲『畵家마치스』…힌데밋트作曲 二、계울기ㅣ타…엘쓰 新交響樂團 指揮 왈터·헤르베르트
◇同九時三〇分 라디오·코메듸『萬年筆』全一景 —配役— 金鮮錫(萬年筆行商)……李流星 玉点(어떤집少女)……沈順姬 白樂(女給)……張仁蕙 禹子(女給)……金星子 柳必英……尹夏樂 朴春納……金星影 奈元緖……馬湖月 라디오劇研究會 演出 李一如 水效果 朴一松

第一放送

◇午後六時(東)이야기 柳田國男
◇同六時二五分(東)基礎英語講座 靜谷榮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向井鹿松
◇同八時(名)落語 玄花家花橋
◇同八時二五分(大)淸元

二十一日(木曜)

◇午後零時五分 聲樂四重唱
一、合奏 (가)五月의노래…西班牙民謠 (나)市上의노래…同 (다)森林의中…아렉소스作曲
二、三重奏 (가)소나타 第一악흔 作曲 (나)지나간날의꿈…프리샤作曲
三、合奏 介ㅣ베르트의봄音樂…高橋功編曲 (가)봄의꿈 (나)꽤꼬리에게 (다)들장미 (라)들어라종달새
高橋맨돌린앙상블 指揮 未岡克馬
◇同三時一五分 主婦時間『여름옷은어떠한빛을擇할가』 金秩常
◇同六、三〇 兒童劇『一男이와玉姬』二景 —配役— 一男이 金淸姬 一男이아버지 南雲 一男이어머니 韓麗姬 玉姬 金順姬 其他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指揮 南基薰 效果 柳河景 作樂 劉永愛
◇同六五五 兒童新聞
◇同七時 講演『諷刺文學이야기』 金東煥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一)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雅樂 李王職雅樂部演奏所로부터中繼 一、細樂 醉太平之曲 二、細樂 堯天舜日之曲 三、合樂 長春不老之曲 李王職雅樂部員 指揮 樂隊長 咸和鎭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演歌 沈淸歌中瀟湘八景 金昌龍 鼓手 池龍九
◇同九時三〇分 古談『三甲峠』 愼麟範

第一放送

◇午前六時三十分(東)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郎
◇同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荻原孝一
◇同一時 趣味講座 二曲과短篇合調 上田常一
◇同四時二〇分(東)大角力實況
◇同六時 하ㅣ모니카三重奏 石橋博夫 堀內道生 和田一夫
◇同六時二五分(東)生活改善講座
◇同七時三〇分(大)講演
◇同八時(東)獨唱
◇同八時二〇分(大)講談——旭堂南陵
◇同八時五〇分(大)義大夫

二十二日(金曜)

◇午後零時〇五分 映畵이야기『모스코의一夜』 徐相弼
◇同二時一五分 婦人時間『유ㅣ고ㅣ의女性觀』 李軒求
◇同六時三〇分 童謠『치리니야』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柳長星
◇同七時 紀念講演『빠너의生涯와그의作品』 李鍾泰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빠이올린과피아노 一、소나타作品三十第三番…베ㅣ토ㅣ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앗사이 第二樂章 포코·베누에트 第三樂章 알레그로·빠에ㅣ체 二、봄에게…그리ㅣ그作曲 빠이올린 桂貞植 피아노 朴賢淑
◇同九時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金蓮紅 文明仙 大笒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報念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개고리打鈴 金鍊守 愼淑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大)家庭講座 崔佐健
◇午後〇時五分 모던小咄
◇同二時(大)婦人時間
◇同四時二〇分(東)大角力實況
◇同六時(仙)이야기 濱田廉
◇同六時二五分(東)基礎英語講座 靈谷榮
◇同七時三〇分(同)講演 海軍大佐 前田稔
◇同八時(同)常磐津
◇同八時三〇分(大)新日本音樂 新管絃社
◇同八時五〇分(東)浪花節 浪花亭愛吉

★曆★ 五月廿一日(木) 陰癸巳四月小 (初一日) 癸卯·金·井·開
●小滿二十一日(舊初一日)
●芒種六日(舊十七日)

婦人良藥

若葉파가티언제나新鮮한生氣를낸다

喜谷實母散

産前産後에！

血液의循環을良好하게하십시다

이러한분은꼭
足腰가厥冷하는분
産前産後인분
月經不順으로苦悶하는분
白帶下로苦痛하시는분
子宮病으로多年苦痛하는분
流産早産의氣味가잇는분
氣分이나쁘고眩氣잇는분
히스테리ㅣ로困難한분
感氣와頭痛이잇는분

定價
一日分 二十錢
三日分 五十錢
七日分 一圓十錢
十四日分 二圓十錢
卅一日分 四圓五十錢

東京·京橋 喜谷市郞右衛門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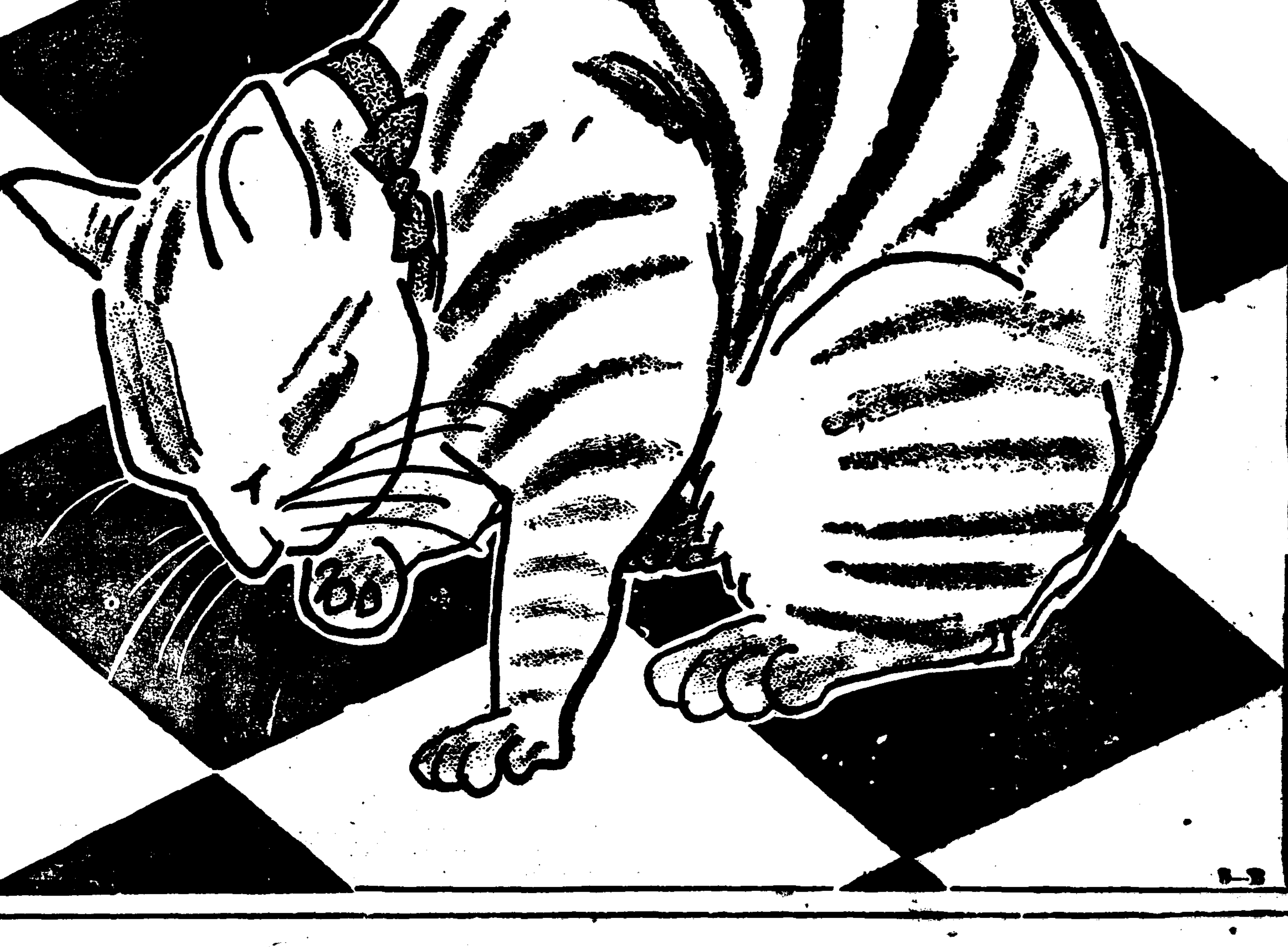
먹기만 해서는 혀는 조화하지안는다

味の素가 꼭必要

싼갑스로利用치안는것은 異常한일입니다

味の素

(登錄商標)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舖 鈴木商店

乙支公詣墓行 (二)

李相昊

기를넘어가 고을째르는 關里가운데를 드러서서 將軍의 四十七代孫이되는 乙支炳氏를 차저갓다。

乙支炳氏의 來歷은 이러하다。將軍의 十七代孫 淡、湛、浹、三兄弟는 高麗仁宗朝에 妙淸亂을 平定한 大功으로 [illegible]하고 蔚山伯으로 封하야 長子인 「淡」은 平壤附近인 將軍의 墓所附近에 伯인 「湛」은 現江西邑附近에 季인 「浹」은 平原[illegible]郡一帶에 各各 食邑을주어 供臣케하엿다고한다。李朝에 내려와서도 將軍의 三十三代孫 [illegible]은 宣祖壬辰亂에 大功을 세우엿기까지 잇섯스나 現在는 後孫들이 零落하야 이華太平洞里에 十餘戶 남어잇슬뿐이다고한다。

乙支炳氏는 우리를 親切히 마저 墓所까지 引導를 바덧다。

지난겨울 [illegible]로 立夏가 來日모레건만 겨우 싹이트고 잇는 밀밧 두렁을 따라거런지 約二十分、疲弊한 애기솔이 띠엄띠엄서잇는 山기슭에 다다럿다。이곳사람들이부르는 玄岩山。여기서부터는 길도업다。솔푸덕이새이로 [illegible]한 雜草를 헤치며 강파라운 山麓을 기어올라가다 우리歷史에서 오직한번이요 또한번인 中原의 大帝國을

攝伏 식혀 우리겨레의 威光을 天下에 떨치게한 그將軍의 遺骨을모서둔 墓所가 여기인데 얼마나 푸대접을하고 말세롭기에 [illegible]도업는 古墳이되여잇슬까。正三品벼슬의 [illegible] 山所만을 [illegible] 잇슬것이아닌가。

밝기잇가운 [illegible]기를 [illegible]가며 올라가기十餘分、초라하기짝이업는 [illegible]草도안픈 新墳한개가보인다。이것이 將軍의墓이라니。山石이무엇이며 제절이무엇이며 [illegible]하고 이러케 새로[illegible]한 來歷을 드르면 더욱氣막힐 일일것이다。

將軍의 墓所를 附近愚民들은 다시업는明堂이라고하야 고 [illegible]들이 [illegible] 將軍의墓 周圍에 墓를쓰기 시작하다가 至今으로부터 約五十年前에는 平壤에사는 李某가 無嚴하게도 [illegible]을 하다시피 바로將軍墓[illegible]자리에 墓를쓰고石物까지 세우고 五十餘年을泰然히 내려왓다는것이다。子孫이繁昌하여 이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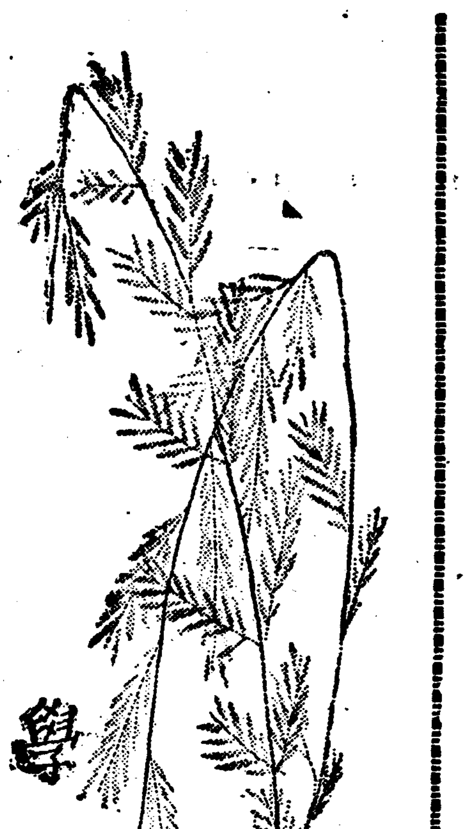
抑制 치못하고 社會가 無心하매 이것을放任해버렷고 官戒가 等閑하매 이를 禁[illegible] 大偉人의 遺骸를 [illegible]두는것을 近者平壤有志[illegible]氏等이 發論하야 李某의 子孫을불러 大義로 [illegible]하야 移葬까지주어 다른곳으로 [illegible]케하고지난寒食日에 새로成墳을한것이라한다。

○……○

記者는 墓前에 三拜하고 將軍의 靈魂을 追慕하기에 [illegible] 나물잇고마럿다。

千三百餘年前、[illegible] 隋의大帝國、隋煬帝의 [illegible]、大將의 [illegible] 百萬大軍、[illegible]、[illegible]의 巨大한[illegible]、薩水의 大[illegible]、三十萬隋兵의 [illegible]……

民族 의하라버지를 알지못하엿스며 제아비의墓를 [illegible] 겨레인者 어찌한겨레의 큰아버지[illegible]를 이러케 [illegible]두고 한民族의 偉人을 이다지 푸대접하고 또 다른 偉人을 어떠케 바랄수잇스며 한民族의 師表를 이다지 蔑視하고 무슨[illegible]를 차질것인고。[illegible] 그어른의 人格 그어른의 [illegible]을 [illegible]하자는것이 偉人의 [illegible] 모시자는 本意인것이라。



文壇時事數題—(六)
同人團體와 文壇的活動

金翰容

現今의 저-널리즘의 傾向에對하야 한마디-제로서 同人團體의 出現을 또 待望한다。이는 勿論以上에 論한 몃가지方策과 軌를 가티하는것이로되 多少 그色彩와

〔趣〕 旨를 달리한것이라고 할수잇다。過去나 現在에잇서서 同人團體에依한 週期的刊行物이 發表되지안흔바도아니오 또-그意義에 對해서도이미 一般이 周知하는바로再次 說明을 加할 必要를 認定치안커니와 이러한 이一方策에對해서 眞實히 생각하고 硏究해보적이 별로 업섯다。다시말하면 先進諸國에서 만히 볼수잇는 同人雜誌式의 刊行物을 본며서 試驗은 해보앗다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社會的現實과 如何한 意味에서 連結되느냐、또는 이러한

〔方〕 法에 依하야 어떠한 收穫을 거둘수잇것느냐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별로 論議된적이 업는듯하다。

同人誌의 同人이라고 밧듯이 思想과 傾向이 同一한 作家들만이라고 볼수는업스되 大體로는 主義나 傾向이 類似한 作家의 一群이 大槪는 그當時 所謂 文壇의 主流라고 일컷는 文學的 思潮에 對立、또는 反抗하기爲하야 主義나 傾向이나 色調에 잇서서 全然 다른新文學을 主張하고 또는 發表하야 文學的 活動을 繼續하는가운데 不知不識間에 그것이 一大

〔新〕 文學運動으로 化하야 終乃、文壇的新潮流를 形成하게까지되는것을 우리는 先進諸國의 歷史的 實例로써 볼수잇는터이다。이런것을 생각할때에 반듯이 큰組織이아니더라도 그래서 不過數人의小數同志들이라도 眞實果敢한 文學的活動을 組織的으로 繼續한다면、그將來는 可驚할 무서운 結果로써 나타날것을 우리는 豫想할수가 잇슬것이다。

朝鮮文壇의 現狀이나 저-널리즘의 現今傾向을 돌아본다면 이러한 運動이 얼마나 必要한가를 痛感할것이 아닌가。첫재는 同人團體의 一作家群으로서 文學運動의

〔二〕 組織團體로 볼수가잇슬것이나 이는 적어도 [illegible] 統制하지안흘수가 업게되리라고 [illegible] 또는同人으로써 [illegible]責任 옹지는 事業이나마지 藝術的良心에비추어 부끄러움이 업는 作品을 피히 期待할수 잇슬것이다。이러타면 적어도 營利에 흐르고 또는 民衆의 脾胃에 阿諂코저하는 態度를 取하는일은 萬無하리라고 斷定할수잇다。한걸음 나아가서 이러한 作家群이 眞摯한 藝術的活動으로서 積極的으로 文壇에 頭角을 내밀때에는 文壇은 一種의 脅威를 늣끼는同時에 떠할수업는 刺戟이되어

〔或〕 은 또다른 同人群의 出現으로 對立을 示하고 或은 新潮流와 文壇的主流사이에 理論的鬪爭이 展開되고 或은 同人 作家群끼리의 藝術的鬪爭이 起하는等 文壇은 자못 活潑한 움직임을 보일것이니 所謂 文壇의 不振이나 停滯니하는 듯기에도 끔직한 말을 우리文壇에서 一掃해버릴수가 잇슬것이다。이런意味에서 同人式으로 組織된 藝術團體가 만히 出現하야 그活潑한 藝術的活動을 보여주기를

〔待〕 望하야 마지안는바이다。

그러나 여긔서 一言을 要할것은 上段에서 先進諸國의 例를 들어서 說明할때에 文壇的主流에 反抗하기爲하야 이런團體가 出現한다고하엿는데 事實 그러한 境遇를 우리는 만히볼수잇스나、반듯이 新文學運動이 아니면 同人式團體의 活動을 期約할수업다는것은 아니다。또、硏究와 그發表를 爲한 團體로서도

〔可〕 能하고 創作活動團體로서도 可能하다는것을 附言해둔다。如何튼 우리는 朝鮮의 文壇的現實에 適合에잇서서 文壇의 沈滯를 打破하기爲해서나 또는 저-널리즘의 淺味스럽지못한 傾向에 抗抗하기 爲해서나 文學을 組織的으로 硏究하기爲해서나 創作不振의傾向을 물리치기 爲해서나 其他 여러가지 意味에서 文壇의 組織的小團體로서 同人式硏究團體나 創作發表의 主體가되여한 組織이 만히 일어나야하겟다는것을

〔痛〕 感하는바이다。

이를爲해서도 經濟的基礎가 必要할것이오 또 犧牲的 獻身的活動을 繼續하려면 內的外的의 幾多의 苦難을 排除하여야 할것이다。그러나 이것이 一方法으로서 過한 課題가 업다면 朝鮮文學樹立을 爲하야 犧牲的覺悟로써 이實現을 爲하야努力하여야 할것이다。그러므로當然히이도 文壇의 一重要課題로서硏究되어야 할것임을 確信하는바이다。

美展槪評 ②

安碩柱

그러나 나는 金氏의 作品에서 나타나는 態度를 보고 好意를 가질이요 東洋畵에서나 西洋畵에서나 技巧의 卓越을 보혀주지못함을 말하고십다 다만 콤포지숀이라든가 作者의 [illegible]를 더 사랑하고십고 그의 떠-된 描寫(一幅畵面에잇서서)말하자면 어느 一部分에 그의 붓끗이 빼앗긴것은 禮讚할수가업다。『春陽』에잇서서 人物들이 作者의 主眼이된것처럼 그背景의 物象이 不實한데서 이말이 나왓다。두지라할가 나무궤라할가 그것이나 그우헤노흔 瓶가튼것이 平面化한데서 이作品의 價値의 한모퉁이를 喪失한 늣김이잇다。

이것은 이作品에잇서서 極히적은缺點이겟지만 이 極히적은缺點하나이 그作品의 缺點이라면 作家自身의 不安이 업지안흘것이다

▲金永基氏 美展에서 이러한 類의平凡한 作品들을 辭讓한다면 너무도蒼白한 展覽會가되겟스나 美展이 寬大하다는것도여기에잇고 秀才들의 不滿도여기에잇슬것이나 美展은 紳士的인데야 옷고보는것도 罪는안될줄안다

이것은 金永基氏를 말하는것이아니요 美展全體를 살펴보고 平凡한 作品들만을 추려서 말하는바다 金氏에게 말슴할것은 그러한 그림은 얼마 남음이만히 그러본 그림이니 당신의그림을 한幅이라도 보혀주시요-하는말이다。

▲許林氏 이분의 作品도 또 靑田畵의 하나다 初學時代는 自己의 崇拜하는 先輩의 畵風을 따르는수도 잇스나 그래도 畵家의 良心이 許諾하는 그範圍[illegible] 心이 篤實하다할까 두가지中에 그 하나의結論이 잇슬것이다

그런데 許 林氏는 조곰엇길을 發見한듯하나 아즉가태서는 이러타고‧指摘해말할 조흔材料를 보혀주지안햇다 『雨後疊翠』은 技巧中心이요 『秋林暮春』은 그래도 情緖的인데서 한作家의 時間的精神變化를 볼수잇다 勇力하면 一家畵임을때가 멀지안홈을 말하고십다

▲曹龍承氏 이분의 그림을볼때 朝鮮의 東洋畵家中에는 이自然을 全體로움줄모르는 性癖을 하자면 한꺼번에 그마음에 안을줄을모른다는말이다 거기서 女性的인에히스테리칼한 觀照가잇다는말이다 여기서 아즉까지도 東洋畵에서 큰것을 創造하는畵壇에서만고칠다면 그것을 藝術이라고 봇칠 必要까지야 무엇이잇는가 物象內面으로 보지안코 엇지그物象을 옮겨노흘수가 잇슬까 누구의 말맛다나이宇宙萬物에 極히적은 흠방울에도 眞理가잇다는 말가터구나 偉人으로써 어느것에서나 그內面에서 무엇이고 探究해내지안코는 그것은 非藝術家일것입에 나는 兩氏의 作品에 對한 槪評을 이말로 代言하는수밧게업다。

그리고 엇지 그繪畵藝術에서 만이 그風土色 그鄕土色 乃至 그土地의 風習을 淸算할수잇느냐는말이다。畵面에 나타난 矛盾은 實로 그作者의 沒常識을 表明함이 아니고 무어이랴。

漢詩

淸明—押烟　桐崗 考選

佳作　平壤 得英齋

淸明淑氣又嬋娟
萬化神機織自然
靈雨綠沾芳草岸
信風香送杏花天
園桐漸紫晨含露
溪柳深靑晩帶烟
春色方濃佳節屆
詩人題此興無邊

漢詩募集

題、綠陰
押=韻
◇限五月末日
(薄謝進呈)

北氷洋上의 空氣는溫暖

【모스크바發同盟電信】「소베-트」의有名한 氣象學者 POA 「모르차노프」敎授는 最近모스크바의 學界學士院會席上에서 北氷洋上의 空氣는 우리들의 豫想에 反하야 非常히따뜻하다」고하는 事實을 發表하야 學界의 異彩를 끄으럿다 「모르차노프」敎授는 最近數個月에 亘하야 「프란쓰‧죠세프‧랜드」의 「티카야灣의 觀測所에서 無線裝置에依한 自動氣球를 揭揚하고 實驗을 繼續한바 그結果、이 新事實을 發見한것이다。「모르차노프」敎授의 報告書는 다음과가트다

「實驗의 結果에 依하면 北洋上 約一粁의 高度에 잇는 空氣層은 晝氏平均 十度로서 溫帶에와 同高度의 空氣層보다도 노픈것을 알엇다。이것은 熱이 大陸의 光線과 熱源을 供하엿다는것과 空氣가 地球의 遠心力에 依해서 極北에 移動되는 事實에 基因한것이라고 생각된다」

讀者社交室

▲朝鮮內에게시는 讀者諸賢이여!!

本人이 [illegible]故國을떠나지고 北滿에서 此北國의身勢가되지도 於焉間 四年이되엿나이다 그동안에 제의苦生이야 무엇이라하리요마는 때로는銃殺까지當할번하고 겨우살엇나이다 참으로 文字그대로九死一生의格입니다 그런대諸賢이여! 제가入滿하여 切實히늣기는것은 무엇보다 在滿同胞子弟文盲을打破함이 急先務임을늣기와 主力中 今番少年文庫를設立코 一般子弟의 文學向上을圖謀코저하옵는바 저로는此에 當할良好한書籍이 無하옵기 茲에貴社와 朝鮮內에게시는 諸賢의에求하오니 諸賢이여 此言에 同感하시와 左記處所로 만히送附하여주심을바라나이다

滿洲興京縣河北 崔士金

▲讀書界의 모든先生님前에 一聞코저하나이다 現代는 科學萬能時代임으로 모든藥品이 發明되엿든한데 幸여나 天然痘의 後跡을 完璧現美케하는 藥品도잇는지?

慈悲하신 醫學界의 모든先生님께옵서는 이社交室를 依持하시와 有無를指示하여 주심을 千萬望要하나이다。(一擔悶者)

▲日前에挿畵를 硏究하여다는 生이여! 未安하오나 小生은童謠를硏究하는者인데 그림童謠를 그려주시렵니까? 반가운靑面을 덧저주소서?

▲讀者諸氏中에서 平原金基任氏가編輯發行한 童謠集파심인 알여주소서? 만일파交換도조습니다

元山府上里一洞八八 姜岡興

▲家庭도相當하오며 現在新聞支局長二十六歲男子이온대 意志强한女子 前에는어떠한길을 밟엇더래도 更生할만한 女子를 求婚하오니 社交欄을通하야 住所姓名을 아르켜주시면 가겟나이다(忠北 一求婚生)

▲家庭敎師를求합니다 現職敎員 또는師範學校在學中인女子로서 [illegible] (面會時一午後六時以後) [illegible] 一七○一八 金生

連載野談 布袋記 (十八)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머슴살든일견(六)

때는 정히 추강(秋江)은 냉냉하고 풍악(楓岳)은 연연한 추구월이엿다。

서리긔운을 머금은 저녁해비치 압록강 거너 수실촌(水實村)이라는 마을을 에워 쌋슬때에 어떤 젊은 사나이 한사람이 동구안에 들어온다。

그는 떼포피렴에 끄래가랑을하고 다만 지팡이 하나만 짓고 모양이 몹시나 초조하얏다。

그러나 그얼골비츤 히고 거룩거리는 매우 점잔은것으로 보아 분명히 막치기는 아닌것을 짐작할수잇섯다。

그런데 그는 동구안에 들어서면서 이골목 저골목을 두루 헤매는양이 못지안허도 정처업시 나선 가련한 나그내길인것을 용이하게 알수잇섯다。

「여보서요。이동내에 부자집이 어느집이오니까?」

하고 그는 잠간 한가한드시 곰방담배대를 물고 길에서 어실렁 거리는 늙은 농부에게 물엇다。

「웨엿겟소。저 언덕우에 오둑소슨 큰집이 이 동내서 유명한 부자집이요」

하며 늙은 농부는 그 부자집을 선선히 가르처 주엇다。

그 부자집 주인은 음모(陰牟)라는 사람이니 음모는 재물이 만코、권세가 만흐며 또는 거만하고、심술궂고、떼만코、인색하고、미련하고、남의 등사정을 못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는 그 늙은 농부가 가르처주는 음모의 집을 차저갓다。

그리고 그는 마침 기담배대를 물고 마루에서 거니는 뚱뚱한 사람이 음모인줄로 짐작하고 뜰아래에서 공손히 절을하얏다。

「응、거누구?」

하고 음모는 의심스러운 긔색으로 물엇다。

「예、저는 올툭(乙秃)이라하압는데 옛슬 말슴이 잇사와서 왓슴니다。」

「응、무슨 말이야?」

「저는 일쯕 부모를 여이고 의지할곳이 업는 신세가 되어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다행히 대의 후하시다는 소문을 뜻고 평생을 의지할가하고 왓슴니다。」

「무업하고 평생을 의지해。밥만 먹고!」

「그럴도리까 잇슴니가! 나무도하고、농사도 거름고、심부름도 해듸여야지요。」

「그럼 머슴노릇을 하겟단 말이야?」

「그저 명목은 지으시는대로。일은 식히시는대로。」

「그럼 작정이면 잇서봐。광밥은 못먹이겟스니。」

하며 음모는 그큰배를 아프로 불숙 내밀며 여러 잔소리를짓거리다가、마지못해 큰 생색이나 보이는듯이 머슴으로 잇기를 겨우 허락하얏다。

올툭은 그날밤에 음모의집 눈간방에서 그동안 산도 험하고 물도 거친 머나먼 길에서 헤매든 피곤한 몸을 쉬게되엿다。

그방의 벽은 조희조각하나붓지아니한 누런 흙벽。방바닥에 깔것은 간간히 찌어지고 헤어진 샛자리엿다。

그리고 한편구석에 물아부친 때만히 무든 누덕이이불。머리때로 한겹을 입힌 토막목침。목만 남은 보선짝。

거기서 풍기는 냄새는 코를 이 저리고 골치가 압헛다。

「아-。아지못할손 사람의팔자。내가 오늘날 이방에 어찌해 왓는고。악한세상。독한세상。무서운인심。더러운인심。제권세、재배를 볼리기 위하야는 부모와 형제라도 죽여야만하는 이러한세상。이러한인심。아!。하느님이시여。내외구력 그보담도 고구려의 압날이어 지렴소이다。」

하고 올툭은 긴한숨을 짓고、또 거운 눈물을 흘녓다。

그리고 시조 동명성왕(東明聖王)신궁편을 향하야 고개를 단정이 숙이고

「고구려대국의 찬란한 비치땅에 떠러지게 맙소서。」

하고 지성으로 빌엇다。

그런데 올툭이 고구려도성을 버서남으로써 머리업는 귀신이 될것을 면하엿고 음모의집 머슴이 됨으로써 길귀신이 될것을 면한것은 불행중에도다행이라할수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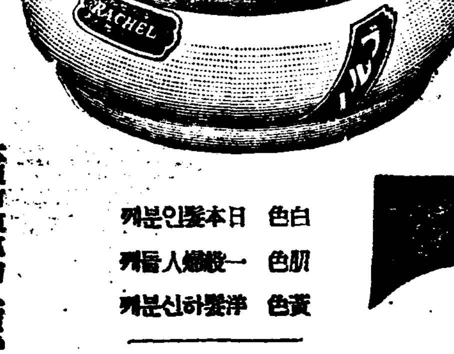
그러나 올툭은 음모의집 머슴사리도 마음을 놋코 편히할수업는 두려움이잇섯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왕의 어명을 비든 용맹한 군사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조치오는듯한 사정이잇는 까닭이엿다。

絶對로白粉下를使用치안코 普通固煉白粉의1/3의分量으로놀낼만치 아름다운목化粧이되는最高級의목白粉

花井蘭子氏의말슴

목白粉으로 至今까지 여러가지 使用하여보앗지만 이것이면 滿足하다고 생각한것이업드니 最近 "부루-스"를使用하야 비로서 白粉의良否를 알엇습니다 "부루-스"야말로 全혀 목白粉으로서 理想的化粧品입니다 그귀치안흔白粉下가 全혀所用업시 크림과가티 잘먹는 普通固煉의三分의一量으로 훌륭히 아름다운化粧이됩니다 普通固煉白粉과가티 살결을 거칠게하지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白粉이라고 생각합니다。



ブルース
부 루 스
호르몬(含有)

—試用甁進呈—
二錢切手三枚封入하야申込하면試用甁으로贈呈함 (朝鮮日報名記入)다니

白色 日本人髮色에
肌色 一般婦人에
黃色 洋裝하신분에

½ 1.00
三倍의使用

百貨店、藥局、小賣商化粧品部에서販賣
하나이品切인때는直接左記本社로注文하심시오 送料는本社가負擔합니다

東洋總發賣元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三丁目 チイユーカムパニー 振替大阪八三二五番

帝都キネマ 마네킨 來る

「부루-스」를 使用하는 日活스타- 花井蘭子氏

新流行의 목美粧料

五月二十一日二十二日(十二時부터八時까지) 京城府本町四丁目 文化小間物店
五月二十三日(十二時부터八時까지) 龍山 三協
五月二十四日(十二時부터八時까지) 京城府鍾路二丁目 德永本店
京城府通洞 洋[illegible]百貨店

ひふ病 アスター

여름의强請者! 皮膚病에는 이저저것에속지말고アスター를!
쓰리지안코、아프지안코、근질근지안코、애기들태독、婦人들살결에도安全

主効 무좀 버짐 습진 태독 음낭습진 [illegible]

一圓、五十錢、三十五錢
各藥店에잇슴

齒痛이면 옛날이나 只今도

令治水는絶大한 信用과好評잇다
藥은効能이 第一임니다
齒痛이곳낫는 夜中突發에도 곳 잘듯는家庭必備藥

令治水

主効 虫齒痛、神經性齒痛、上氣로오는齒痛、齒齦痛、其他齒痛
定價(消費稅付)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全國藥店에잇슴

大阪 東京 丹平商會

무서운病菌은
空氣中에서또는飮食物을通하야
늘 사람몸에侵蝕되고잇습니다

本劑는 이 무서운病菌을 口中에서 豫防하는 効力을 가지고잇습니다
下記의配劑와 그効能을 잘읽어주시사
飮食을 잡수신후 外出하실때、사람모힌곳에게실때는 반듯이 가오—루의 두세개를 입안에 너어두시사 모—든병을 예전에예방하여주시기를 바람니다

カ가 オ오 ール루
口中殺菌劑 (衛生口錠)
입으로들어오는병을막고 정신을상쾌케하는!!

配劑와其効用
製劑顧問 ドクトル 松尾道

一、口中殺菌劑를配合함으로
따라서 空氣 또는 飮食物과함께 입(口腔)으로 부터드러오는 모—든병원균(病原菌)을口中에서 殺菌하게됨으로 모—든傳染病을豫防합니다
二、健胃整腸劑를配合함으로
따라서 위(胃)를健全히하고 또消化를亢進식혀서 食慾을增進케하고 설사(下痢) 腸가다루等에는 整腸劑는 殺菌劑와서로協力하야 이것을治療합니다
三、興奮劑와强壯劑를配合함으로
따라서 心身의疲勞衰時에는 各機能을興奮케하야 氣力을回復旺盛케하며 健胃劑와함께 肉體를 强壯케만듬니다
四、淸凉劑와美音劑를配合함으로
따라서 그독특한芳香으로 입안(口中)의냄새(惡臭)와 惡熱을除去하고 祛痰劑는咽喉의乾燥를潤滑케하야 音聲을美化하며 따라서 精神을爽快케합니다

◎그러므로여러분의保健을위하야
◇전염병이류행될때 ◇음식을잡수신후
◇남의게대하실때 ◇긔차전차에타실때
◇사무와공무하실때 ◇원족운동을하실때
◇입에서냄새나실때 ◇술담배를자실때
◇禁煙코저하실때 ◇音聲을쓰실때
◇기분조치못하실때 ◇피곤하실때
가오—루두세개(二三粒)를口中에너심시요 本劑를口中에너심으로써마스크 양추질(含嗽)의 必要가업슬뿐만아니라 心身을 상쾌(爽快)케하며위장(胃腸)을健全히하는効果가잇슴니다

○오늘부터 곳 カオール의常用을권함니다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ポケット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光採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保健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カオール는 全道到處의藥房에잇슴니다

只今、高尙優美・携帶至便・ヒスイ色
「社交容器」無代進呈中
進呈方法
애용하여주시는표로써「가오—루」五十錢以上의効能書한장과교환하야한개식진정하옵니다。

本舖 株式會社 安藤井筒堂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新養毛料 ワカミツ
비듬防止 가려운데 拔毛에 毛生에 와가미쯔

●模範的頭痛藥! 胃腸을안상한다 ノーシン 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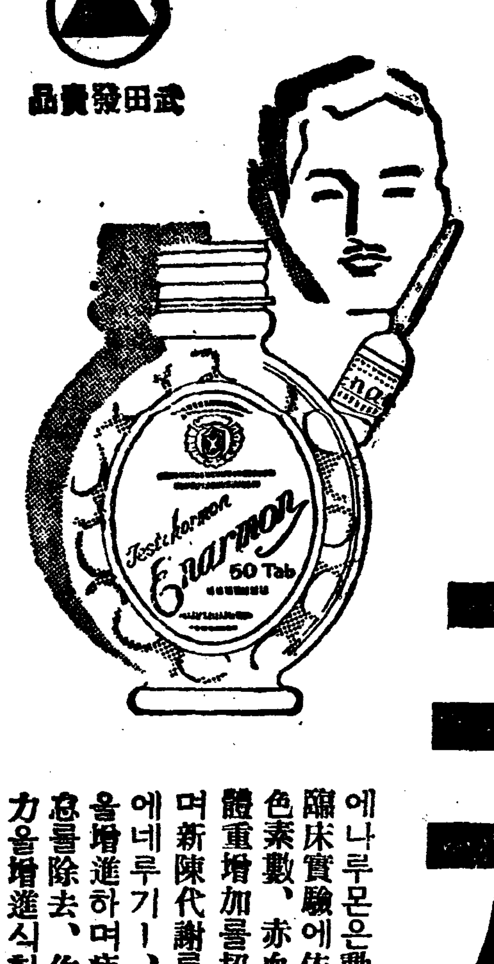
淋疾菌 이눈에들어오면눈먼다겁난병은빨니 ネオヂリン 네오지린 으로고치라
各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두통과차용에
노—진

「初戀日記」 新興キネマ製作中
로케숀에서
우리들의—
健康파憧憬파를
여실히나타냄에는카
루피스情調에限하는것이여
—初戀구룹—
(伏見信子・春日秀子・堀宮敏子・御影公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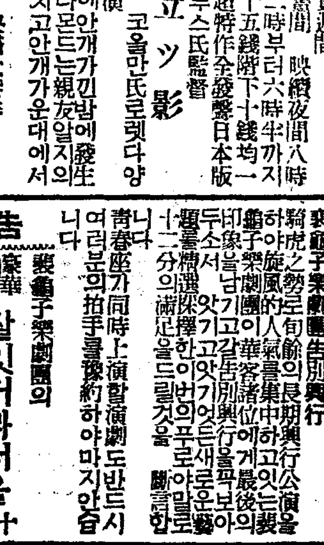
이한잔에初戀의맛이엿따

武田發賣品
純正
男性호르몬



エナルモン 에나루몬
國際的으로効力의優秀가承認되고잇다
國際聯盟호르몬委員파—구스博士의『男性호르몬劑의、効力比較試驗』의結果、에나루몬의効果는다른製品에比較하야 强力한事實을 證明하엿슴니다。
(ロンドン中央試驗所 カロー・ヂーンスライニ氏發表 一九三五年七月「生化學雜報」所載)
에나루몬은動物及臨床實驗에依한血色素數、赤血球와體重增加를招來하며新陳代謝를促進에네루기—、精力을增進하며疲勞倦怠를除去、作業能力을增進식힘
初老期・高齡期の 生活機能減退、神經障碍、倦怠感、眼精疲勞、睡眠不良、임포텐트、動脈硬化、腦溢血。
靑・壯年期に於て 男性的特徵을發揮못하는性徵不全生殖器性神經衰弱、性障害、憂鬱症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本町
製造元 株式會社 帝國社臟器藥研究所 川崎市大富町
86—389(O)

新鮮優良—비타민豊富
絕對信賴—販賣가가장빠르다
森永ミルク



森永煉乳株式會社

五月十九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高級映畫鑑賞週間
每日三回興行晝間 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 夜間八時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廿世紀映畫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로이、델루스氏監督
霧ニ立ツ影
로날드、코올만氏로렛다양그孃主演
極東倫敦名物에안개가낌밤에發生한事件이다로라몬드는親友알지의結婚式을갓맛치고안개가운대에서헤매엿다
全發聲大探偵劇 죤지—갈반제氏輸아—빈니孃主演
로바—드슬롭—映畫社特作 죤지—아돌푸이氏監督
超人은싸운다
東亞キネマ京都作品 寶塚キネマ社提供
波浮の港
高田稔氏 歌川るり子孃 主演
여러분의 鍾路五丁目 電光七三番
第一劇場

五月十四日封切
每日三回午前十一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半
◆今週特別大興行 中入場하시는손님先着者三百名에限해서는라이온齒磨粉一袋式無料로進呈하겟슴니다
◆漢陽映畫社超特作映畫 高麗映畫株式會社提供 春史羅雲奎氏原作監督
아리랑 第三篇 (朝鮮語全發聲)
羅雲奎、申一仙、尹逢春、田澤二、車相銀、玄芳蘭、南宮仙、金德心 主演
待望半載 萬難을突破하고嚴然公開
◆高水準을것는黃金篇 佛國GG社超大作映畫 絢爛한스타—陣을驅使한名匠그라노스키—畢生의力作
LES NUITS MOSCOVITES
모스코—의一夜
피엘위롱・아나베라・아리—봐—主演 美主義와藝術의大衆化!絢爛한情的메로드라마 徹頭徹尾興味津津
◆라노스키—當代唯一의代表作!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로시엘 아드손 主演
헨리・킹監督作品 巨匠헨리・킹
東道
往年의名畫를發聲化하는新作 東道의感激!永遠한感激가다시 금돌아오는珠玉篇
全鮮第一映畫殿堂
團成社

五月十六日밤부터 晝夜二回
裵龜子樂劇團告別興行
騎虎之勢로旬餘의長期興行公演을하야旋風的人氣를集中하고잇는裵龜子樂劇團이華客諸位에게最後의作別을고하는告別興行을푹보아두시요
靑春座가同時上演할演劇도반드시여러분의拍手를豫約하야마지안슴니다
告別豪華陣
裵龜子樂劇團의
레뷰 잘잇거라서울 十景
劍劇 近藤勇 一場
樂劇 사랑은허무하기 물거품갓드라 四場
靑春座演劇
家庭悲劇 雙玉淚 二幕
指定席豫約席의設備가完全하오니만히利用하여주시기바랍니다電話其他로下命하시면酬應하옵니다
西大門町 電光3 三三〇番
東洋劇場

當る十九日より四日間
每日晝夜二回興行午前十一時開演
半歲振りの御家族爆笑週間??
階上・階下席共均一
大人・學生・二十錢均一
小人・拾錢 均一開放
FOX超特作日本版
製作ハロルド・ロイドプロ
日本版監修 佐佐木邦
監督サム・テイラー
ロイドの大勝利
ハロルド・ロイド主演 ヘレナ・マーケル孃助演
新興キネマ提供
東プロ超弩級時代劇
オール・錢形平次捕物控
原作野村胡堂 監督山本松男
撮影野村金吾
紅蓮地獄
嵐寬壽郎大熱演
歌川八重子・五十鈴桂子・淺香新八郎
夜子・助演
新興キネマ現代劇部特作
原作脚本部合作 監督川手二郎
爆笑篇 細君ネロ
永樂町 電話
中央館

貯水量去益減少 制限給水를持續
根本的對策을아니세운다고 元山府에非難이藉藉

【元山】원산부안변면에게 으로 수를 공급할 원산부수도(水道)는 수원이 떼로 날이 조금마가 물면 제한급수를하여 단수소동을 일으키엇는데 요지음에도오전十시로부터 오후五시까지 급수를 제한하여 부민의생활상막대한 불편을 주게하여 유지점등에 잇서서는 손해가 막대하다는바 이럿케 간금 단수소동을 연발하는 근원인을 알어보면 현재원산부상수도(上水道)는 대정오년에 창설한것으로 소화륙년에 일부확장하야 인구사만에 급수인원을 그의 오십퍼센트로 잡아 이만명이 급수할수잇게 설비하엿는데 지금원산부의 현세를 볼다 고하면 인구가 팽창하여 륙만을 초과하고잇스며 급수인원도 삼만을 넘게되여 상수도저수량이 심마이망칙인데 반하여 급수사용량은 십사만내지 십오만이만칙을 초과하게되니부득이 급수를 제한하지 안흘수 업다는바 금년부회의결의를어더 오는칠월에 준공을 볼예정인도수관보선공사(送水管補線工事)도 수관부족수단에 불과하여 사실상 금후에 급수제한완화에 별반효과를 주지못할것이라하야 일반부민은 불평만하리쓰는 여름철을 압두고 불안에 싸여잇스며 공업도시로서 약진을 거듭하는금후원산의 수도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안코 단수제한등 소극적정책으로 임시도호하는 부당국의 태도를 일반은 비난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사베트"서潛入한 怪青年二名檢擧
國際"스파이"嫌疑로

【新義州】최근 『사베트』 정부에서 무전(無電)호편을 식힌 국적스파이 흉펴과 신명을 조선내로 파견하엿다는 정보를 밧고 평북경찰부에서는 각방면에 엄중수배를 하야오든바 수일전 남행열차안에서 『사베트』로부터 들어오는 경남(慶南) 출생의 조선인 청년 두명을 이동경찰이 검거하야 목하 평북도경찰부에서 극비밀리에 엄중한 취조를 진행하고 잇다는바 자세한 내용은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전긔 두명은 『사베트』정부로부터 조선에파견한 국제 "스파이"로 밀령을 밧고 조선내에 잠입하는 도중에 체포된것이라고한다

昌原郡龜山面에 簡易學校設置

【馬山】창원군구산면(昌原郡龜山面)에는 단하나의 공보교(公普校)가 잇스나 벽지인관계로 교통이 불편하야 자녀들의 교육에 막대한불편을 늣기든중 동면반동리(盤洞里)에서는 김용수(金溶洙)씨의 현금천원의 희사를비롯하야 약일천칠백원의 기본금이준비되여 배움에 주리고잇는 무산아동교육기관인 간이학교를 설치케되여 면장배석판(裵錫判)씨와 일반유지의 주선으로 지난십오일 반동(盤洞)림시교사에서 다수래빈참석으로 개교식을 거행하엿스며 동교교장으로는 동면공보교(同面公普校)장 황영수(黃永洙)씨가 림시교장으로 부임케 되엿다한다

清津沿岸埠頭 擴張工事着工

【淸津】청진부영 연안부두의 확장공사는 그동안 준비가 착착진섭되야 부직영(府直營)으로 지난 십오일부터 공사에 착수하엿는데 총공비는 삼만팔천원으로 오는 팔월중순경에 완성할 예정이라 한다.

盈德의救窮砂防工事 五個年만에畢役
總工費는十二萬圓

【盈德】경북영덕군내(盈德郡內) 영덕면(盈德面)에 여섯개소와 영해면(寧海面)에 여섯개소소 화목면도부터 궁민구제 사방공사(砂防工事)를 총공비십삼만이천원으로 착수하야 본년삼월말까지 대체공사를 종한바 공사총면적은 오백여정보라는대 전부설적이 량호하다하며 사업실적조사도 지난십일일부터 동십칠일까지 종료한바 앞으로도계속하기를 군민들은 희망한다고 한다

沙里院支局後援 自轉車競技會
大盛況裡終幕

【沙里院】사리원 유연조합(沙里院體育協會)主催와 본보지국후원으로 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예정한시일대로지난십칠일오전열한시에개막한바 참가선수는멀리경성의주를비롯하야 각지선수오십여명에 녀자선수가 구명으로 대성황을이루엇섯다 회장 인정수(印廷洙)씨의 개회인사와 심판의 경기에대한주의설명이잇슨후 경기순에의하야 십팔일까지 량일간 대회를 원만히 맛첫는데 명예의 우승은 아래와갓다고한다

◇……一流
沙里院 朴成烈(一等)
同 金平河(二等)
京城 任基德(三等)

◇……二流
沙里院 田炳敏(一等)
興水院 徐廷俊(二等)
同 河淳京(三等)

◇……三流
定州 金寬淳(一等)
黃州 李玉燮(二等)
同 徐宗俊(三等)

會寧地方에 播種雨洽足

【會寧】풍년드는해는 비가와도 반다시 밤에온다고 하더니 회녕지방에는 금춘이후로 파종기인 이때에 더욱이 비가 오지 아녀 농가에서 우려 하든중 지난 십오일 초저녁 부터 비가오기 시작하야 십륙일 새벽까지 아주흡족하게 내리엿슴으로 일반 농가에서는 이번비가 금년에 풍년 들 징조라고 기빼하며 우려에 싸이엿든 수미(愁眉)를 폇다고한다

第二次 端川農組公判
二十五日에開廷決定

【咸興】제이차단천농조(第二次端川農組)사건최미환(崔琉煥)등신명에관한 치유법위반 죄명의공판은 오는이십오일 함흥법원에서 미전(米田)재판장주심 평곡소전창 량판사배석대정(大町)검사의 립회로 개정하게되엿다한다

佛教少年軍 記念映畫盛況

【義州】의주불교소년군(佛敎少年軍)은 립대식기념으로 지난십삼, 십사량일밤 당지공회당에서 본보외량지국후원하에 영화대회를 성대히 거행하얏다고한다

簡易學校新設에 喜捨金이遝至

【寶城】전남보성군득량면해평리(寶城郡得粮面海坪里)에 간이학교를 오는학월중에 신설하게되매 각계인사의 희사금이 벌서 일천오백삼십사원에달하야 일반면민에게 만흔감동을 주어엇다하며 희사금액과 씨명은다음과 갓다한다

六百圓 寶城興業株式會社 二百圓 千川爲之助 百圓式 柳光鎬 張京錄 參十圓式 朴重鎬 林東守 十五圓式 金京俊 朴吉善 鄭君先 朴相仁 朴鎔玉 十圓式 朴仁圭 金鍾五 韓甲朱 孫永培 金奉五 朴允玉 李成來 金東淵 林柄采 金順五 朴南根 金永化 朴泳圭 八圓式 韓明柱 朴元柱 林鍾洙 七圓式 金點玉 金龍大 李丹甫 鄭東西 金同仁玉 申士允 崔五鉉 五圓式 曹魏東烷 張東振 韓性元 朴在植 朱東銀 六圓式 朴元淑 曹根 金成萬 魏南奎 金德烈 朴興善 金鍾大 金東浩 林容局 柳華京 金德元 朴相出 朴正琺 宣月出 朴大圭 黃興成 朴泰真 朱檀伊 林亨淑 四圓式 李秉文 盧良守 朴洪西 許京 鄭潤零 林鍾大 申在熙 三圓式 金東甫 朴吉俊 李正鎬 朴明根 韓性琮 鄭聖欽 金長允 明德先 朱檀出 車奉零 二圓式 林鎬八 李多玉 金占桀 申活隆 千斗石 趙永辰 朴珠圭 金吉元

德川에火災

【德川】지난 십칠일 오후다섯시경에 평남덕천군 덕천면 읍남리 정창열(鄭昌烈)의 재사간에서 불이 일어나 집한채를 다태운일이잇다 그자세한 내용을 알어본바에 의하면 머슴이 닭나귀 몰을끄리노라고 몰놓대든중 바람이 심이불고 또그머슴은 불구자라 동작이 부자유하야 나무가리에불이 당긔기시작하여 정한계는다려오고 소방수의 노력으로 진화시기고 외양간에 매여잇든 나귀한마리가 참혹히도 타죽엇다하며 손해는 자세히 몰으나 이백원에 가량다고한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羅南支局
位置 羅南邑內
支局長 馬奉鎭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順天支局
位置 順天郡邑內
金鍾斗
右任支局長
支局長 崔式泰
右依願解任

慈城支局
位置 慈城郡邑內
金龍奎
右任支局長
支局長 金文奎
右死亡으로免支局長

四平街支局
位置 四平街北四條通二〇ノ二
李源默
右任支局長
支局長 姜學採
右依願解任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 白

光陽分局
位置 光陽郡邑內
分局長 許敬永

謹告

光州支局 總務兼記者 李甫紀 右新任
三陟支局 總務兼記者 金振光 記者 金重烈 右新任
杆城支局 記者 金歡洙 右新任
清道支局 顧問 崔在鎬 顧問 林鍾秀 右解任
尙州支局 化寧分局長 洪致中 右新任 化寧分局長 金鍾煥 右依願解任
釜山支局 集金員 朴德龍 右解任 集金員 朴讚 右新任
造岳支局 總務兼記者 金石恩 右新任 總務兼記者 李評武 右依願解任
熙川支局 記者 孔仁濟 价古分局長 金殷憲 顧問 金卓琨 同 崔鼎洽 同 宋啓源 同 金承瑞 右新任
鐵山支局 記者 金光燁 右新任
咸興支局 集金員 崔鳳鉉 同 崔鳳奎 右新任
四平街支局 集金員 崔□□ 同 李□□ 集金員 申□永 右新任

愛慾의彼岸 【14】
李光洙 作
金康穆 畫

『뻑국새 울 때는 아직 아직 안되엇징. 저건 낭ㅅ비둘기라는 것이다』
하고 김장로가 말을 보고웃는다
『난 뻑국새 소리를 알고 습퍼혯네. 그럼 취소』
하고 혜련이가 문임의 소매를 잡아당긴다.
문임이가 김장로의 눈에는 안 띄우게 혜련을 향하야서 눈을 흘긴다. 그것은 어떤 남자가 문임에게 사랑을 구하는 편지를 하면서 만일 들어주지아니하면 자긔는 죽어서 뽀ㅅ삽에 뻑국새가 되어서 문임의 창 밧게 와서 울겟노라고 위협을 하더니 그 남자가 정말 떼병으로 죽어버려서 뻑국새 소리를 들으면 그 남자가 불상하게 생각한다는 문임의 말을 들엇기 때문에 혜련이가 문임을 놀려먹은것이엇다.

고개를 넘고 물ㅅ구비를 돌고 얼마를 올라가다가 큰 반석이 잇고 적은 폭포와 소가 진곳에 다달아서 김장로는,
『너의들 다리 아니 아프냐』
하고 단장에 몸을 기대엇다.
『아부지 다리 아프서요?』
하고 혜련은 근래에 백발이훨적 느는 아버지를 근심스럽게 바라보앗다. 이발ㅅ집에서 물을 들이기 때문에 얼는 보아서는 김장로의 머리에는 아직 백발이 업는것 갓지마는 물들이지가 여러날이되면 자라올라오는 머리카락 밋동은 약속히도 흰것이 나와다.
『아부지 여긔서 쉬어요』
하고 혜련이가 먼저 반석으로 뛰어나려간다.
『문임이는 어떠냐. 다리 아니 아프냐』
하고 김장로는 얼굴이 약간 상긔가 되어서 마치 불그레한 김이 오르는듯한 문임의 얼굴을 들여다 본다.
『전 괜치안허요. 아저씨 쉬이시지오』
하고 문임은 백번ㅅ재 아니되는 아자씨라는 말을 가까수로 하엿다.
『그럼 여긔서 쉬이자』
하고 김장로는 시계를 꺼내어보며
『어 벌서 세루 한시가 넘엇는걸. 혜련아, 그 샌드위치 꺼내어서 여긔서 점심들을 먹진』
하고 양복 저고리를 벗는다.
문임은 얼른 김장로의 손에서 그 저구리를 바다서 정한 바위ㅅ등에 놋는다.
세 사람은 싸가지고 온 샌드위치와 과자를 꺼내어서 먹엇다. 혜련과 문임은 반석우으로 넘처 흐르는 맑은 물을 가지고 를 작난을 하엿다.
『문임이는 멧살?』
하고 김장로가 물엇다.
『스물 두살입니다.』
하고 문임이가 물작난하던 손을 들고 대답한다.
『스물두살? 혜련이보다 한 살 우이로군』
하고 김장로는 문임과 혜련을 번갈아본다.
『시굴이 어듸?』
하고 김장로가 또 뭇는다.
『서산이야요』
『서산. 충청도 서산』
『네』
『예산이 아니구 서산이야?』
하고 혜련이가 웃는다.
『본래는 예산인데 아버지때에 서산을떠나섯대요. 그래서 일가는 다 예산에잇서요』
하고 문임이가 대답한다.
『본은?』
하고 김장로가 뭇는다.
『한산이야요』
『한산? 양반이로구면. 목은선생 후손이로구면』
하고 김장로는 웃는다.
『아버니께서는 돌아가섯다구?』
하고 김장로가 또 뭇는다.
『네』
하고 문임의 얼굴은 시무룩해진다. 그리고 손에 들렷던 파자가 돌 우에 떨어진다.
『아버니께서는 무얼 하셧구?』
하고 김장로가 또 뭇는다.
『처음에는 교회ㅅ일도 보시고 학교일도 보시다가 한 사오년전부터는 장사를 하셧서요. 벼랑 누에ㅅ고치랑.』
『응』
하고 김장로는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노-신

머리가 몹시 압흘 때……노-신
골치가 갈려지는것가치쑤실때……노-신
간간히 번두리로 압을 때……노-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할때
이노-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슴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어느藥種商에도 각 藥房에도두루 보신서오
이商標에 注意하시압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二包入 五十錢
三十六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補精強壯劑
眞品海狗腎
樺太廳官營으로捕獲 同水産物檢査所에서嚴正檢査證明한
說明書請求하시면即時보내드리겟습니다
釜山府草梁町三二三ノ三
大洋貿易社
電話二一二一九 振替釜山七九二二

浪花舘
五月二十日より五月二十六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江戸節めをと妾 一二、三〇 三、三〇 六、三〇
大學よいとこ 一、三〇 四、〇〇 八、〇〇
白き處女地 二、〇〇 五、〇〇 九、〇〇
下加茂トーキー
江戸節めをと妾
高田浩吉 白河富士子
蒲田サウント版
大學よいとこ
小津安二郎作品
映畫史あって以來の殉情の傑作
白き處女地
デュヴィヴィエい築いた
最高の映畫詩!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三四番
五月十九日봉早러超特別大公開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낫一時……밤七時四十分始映
米國로만스푸러덕金超特作全
少年장글猛獸冒險大活劇
發聲日本版
密林의荒鷲
監督…에드와-드로리아氏
主演(보-비·콕·고스)
가-다·대이크승君
米國少年團員總出演!米國少年團
聯盟創立廿五週年記念映畫
少年團日本聯盟推薦
米國모노크람社超特作發聲日本版
競馬大活劇
猪突猛進
監督…월이암나이氏
主演(존다-로)氏
(메리부라이안)孃
マキノオール、トーキ映畫!
時代劇 義士外傳
奴の小萬
監督…廣瀨五郎氏
主演…原駒子孃

桃花劇場
京城桃花町
電龍三三三番

廿日ヨリ 超豪華封切特別大興行
晝夜三回 開館 正午開場 入替無
今週の番組
▲毎日・大每國際ニュース 第百四十八號
▲パラマウント映畫超特作日本版
ロイドの牛乳屋
巨匠レオ・マッケリ監督作品
ハロルド・ロイド大熱演 アドルフマンジュ、ヘレンマック助演
喜劇王ロイド一世一代の大傑作
景氣と爆笑を満載したロイド映畫中のNO1、諸君は一分間に二度抱腹爆笑する覺悟が必要ですぞ!!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桃中軒雲右衛門
名匠成瀨巳喜男監督作品
月形龍之介主演 細川ちか子、千葉早智子助演
日本トーキー始まって最初の大傑作!熱に生きる不撓不屈の雲右エ門が苦闘の姿を描いた大作!!
近日公開 パ社『Gウーマン』メトロ『踊るブロードウエイ』パ社『花嫁の感情』PCL『あきれた連中』

五月廿一日부터 正午부터大興行
까지 開館 七時半始演
콜럼비아專屬歌手
蔡奎燁渡米送別音樂會
노래와映畫의밤
蔡奎燁獨唱十餘曲(流行歌)
名歌手賛助出演
……………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
…………에 아지孔雀
미스리-갈 出演
…………
마담과 舞姬
콜럼비아社에大巨篇○○作品
次週콜럼비아社二大超特作一千萬人의期待篇(弓矢)完全
…………百萬의王者同時封切
仁寺町
電光一〇六
朝鮮劇場

─五月廿一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四〇分 午後一時、六時半
◆特別大興行◆
◆佛蘭西SNC社最高傑作映畫
世界的映畫藝術의先驅的作家쥬리안 쥬비비에監督
純白한處女地
가도레느루노오 主演
永遠不朽의金字塔!
…………
갈멘狂想曲
무라레나-드 主演
그대여 마드릿드로가자! 갈멘의나라에 노라나 보세 獨逸이 만든超巨篇
◇日活超特作映畫
大河內傳次郎 主演
百萬兩의壺
(丹下左膳餘話)
……(次週封切)……
(榮光의 道)
全鮮第一
映畫殿堂
團成社

經濟解說 "非合同運送業" 兩計算機關合同" ⑥

……申泰鎬

이兩機關의 合同은 어떠한 條件아래 進行되는가 하면 對等的內容으로 되엇다고한다。 卽 丸計側이나 丸二側이나 役員側의 配定을 만코 적음이 업시 똑 가튼 條件을 取할 方針이라함이다 이것을 엽헤 들음에 新會社의 資本金中 丸計側二十萬圓 丸二側 二十萬圓으로 되는마큼 매우 公正한 立場에서 圓滿한 條件을 삼는것 가티 생각할수 잇다。그러나 이곳에서 한거름을 나아가 冷靜히 考察한다면 그合同條件은 丸計側으로서는 不利한 條件의 結果가 되지안는가 하는 생각을 갓게한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新會社의 出資金이 兩方同額으로 되다고 하드래도 첫재로 丸二는 丸計에서 뛰여나간 一派의 運送的從業員들 뿐이고 丸計는 昭和九年度五分 昭和十年度의 三分의 配當을한會社이다 그렇치만 丸二는 丸計에比하야 業績이 不安한狀態를 가지고 본다면 아모리 兩機關의存在를 四國家情이 不許한다고 하드래도 그 條件만은 丸二는 丸計에 吸收되는 形式을 取함이 常當치안햇슬가 한다。

×

그뿐만아니라 對等的條件에 잇서도 한가지 念慮되는點이 잇다。卽 지금까지 丸計는 그 社長이 日本內地人이엇스나 그 運用에잇서는 朝鮮人役員의손으로 되어왓다 그러나 이번의合同으로서 形態는 一變하야 그中心勢力은 朝鮮人業者로부터 떠러지는結果가 되지 안을가 한다 이에對하야 合同을 力說하든業者의말을 드르면 아래와 가티

◆오늘에잇서 非合同業者의 業者數가 一千二三百店에 達하지만 그中에 八百餘店이 朝鮮人業者임으로 新會社의株券을 公平히分配하고 따러서 新會社의 中心勢力도 朝鮮人業者로서 相當히 保持케될것이다 云云。

×

이말을 듯고서는 얼마쯤 安堵의마음을 가질수가 잇다 그러나 이에對하야 全的으로 信賴를 갓기는 至難한事이다 왜 그러냐고하면 新會社의株券을 公正分配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實際에잇서 可能性이 적고 가령 되다고하드래도 實力問題에잇서 朝鮮人業者의 所持株券이 離散되는것을 무엇으로써 保證할수잇는가 하는點이다 그뿐만아니라 新會社가 아직 完成되지안햇슴으로 그 詳細한內容은 모르나 벌서 傳하는바에 依하면 社長一名 常務理事二名 理事長制에 잇서 朝鮮人으로는 常務理事一名 專務一名으로 內定되엇다는說이 잇다 이것이 果然 事實이라하면 合同함으로써 그中心勢力이 어듸로 기울가 함에 念慮를 안할수가 업게된다。

×

그리고 지금까지 兩計算機關의 對立으로 所謂不良店을 整理치못하야 小運送業者에 만흔支障이 생겻슴으로 이點에잇서도 兩機關의 合同必要가 切實히 잇다고한다 이것이야말로 互相間地方同業者를 相對로하는만큼 不良店의 整理는 當然히 하여야할일이다 그러나 朝鮮人業者는 實力이 薄弱한 사람이 多數인 이때에 結局非合同運送業者側에 잇서서 單一機關이 됨으로 獨占을 遂行하고 그 整理가 程度에 지내치고 或은 小運送改善의 目標가빗나게되지나 안흘가한다 따라서 所謂兩計算機關이란 形式으로 非合同業者를 모아들이는 新機能으로하야금 業者의利益을 缺하게하는結果를 招來할가 念慮한다。

×

다음에는 이合同으로써 兩機關從業員이 整理될것은 當然한理勢일뿐아니라 이에對하야 合同力說者들로도 年三萬圓의 支出減少를 말하엿다 이와가튼實情이 잇슴으로 不利하고 不少한 兩方의從業員을 모두 그대로 採用한다고하는것은 그實現이 至難하리라도 적어도 四十萬圓의 單一機關을 組織함에잇서서 그들生活者의 功勞를 생각하야 不當치안흘가의 念慮가 잇고 그들로하여금 信賴의 말을 갓게하는 明白한表示가 會社의 處理上은 勿論、人道上으로도 取할바의길이다

×

끄트로 바라는바는 朝鮮人非合同運送業者는 合同을 力說하든 主張도 當然하고 또 그 理由도 업지안타 그러나 從來부터 지금까지의 事情을 돌이켜 생각하면 그들은 業者를 爲하야 誠心으로 合同한다는것보다도 互相間의 個人利害에 全部이엇다고 말할수가잇다 그럼으로 이번의 合同에잇서도 그러치 못하지안홀가 이미大勢는 合同에 기울어졋슴으로 모든 個人的 感情을 끄트러버리고 大局的眼目에서 朝鮮人非合同運送業者의 共同步調의 길로 나아가 以上의 諸點을 一掃하도록 하기를 무엇보다도 바라는바이다。

(終)

兩地協調主義下 肥料統制令發布
販賣價格은 完全히 水平化 地域的獨占도 解消

硫安肥料量消費以上으로 生產하고잇스면서 法外의人爲的高市勢로 農家의莫大한不利를 보게되엿든 朝鮮으로서는 販賣肥料의統制法規가 가장必要한立場에잇서 總督府로서도 日本內地의法案의成立에따라 곳制令의發布手續을 밟을것가티 傳하여잇섯는데 十八日 議會에나타난 小川商相의說明에依하면 重要肥料業統制法을 朝鮮에는適用치안흘것가티 傳하야 朝鮮農家는 肥料工業資本의 攻擊에 對하야 無防備狀態에 잇게될것이라하야 各方面의注意를끌고잇다 이에對하야 總督府方面의 說明을듯건대 前記小川商相의說明을 傳하는電文이 多少不足하엿슴으로 朝鮮은朝鮮의立場을 嚴守할 統制法規가 日本內地의 法規에準하야 制令으로發布될것은 疑心업다 卽總督府側의立法目標는 朝鮮側도日本內地의 統制圈內에들어가는데는 異意가업스나 그統制의命令權을 商工大臣이쥐어두고 生產業者組合의決議라도 日本內地業者들 主로한것에 맷겨둔다면 兩者가朝鮮의 事情을 理解치못한處理를 하게될 念慮가 잇슴으로 日本內地의 商工大臣의 統制權과 同一한 權限을 朝鮮總督이 가지게하며 朝鮮의 立場을 主張하자는것이다 그리하여 生產配給、價格、輸出入에 對한統制를하되 日本內地側과 恒常協調하야 兩地의 價格을 完全히 水平化하도록 하자는것이다 그러케된다면 配給網에는 從來보다 多少 달러지며 南朝鮮은 九州方面의 配給에 圈內에들어간다던가 日本海에 面한日本內地一部는 朝鮮의 配給圈內에들어간다던가 西朝鮮方面은 滿洲의 配給圈內에 드러간다던가하야 從來가튼 配給上地域的獨占에依한 價格의獨占은 自然 업서질것이라한다 또滿洲化學도 任意加入에 依하야 肥料統制에 協調하게될 모양이라한다

硫安不勢 尚下向形勢

朝鮮內 硫安市勢는 日本內地低와 中間端境 不需要期에드러가 所持側의 賣急物續出로 各社殊히 자못 不透明商狀를呈하야 各地方區區하나 現物은 日本內地의 三圓七十錢市勢를 따라서 地方的으로는 四圓(鎭南浦)以下를 唱하게되야 先限은 다시 買氣업고 三圓八、九十錢見하며 今後더욱 下押氣味라한다

食料品會社 株式申込 六月末日까지

南大門商人을 主體로한 京城食料品株式會社 第一回發起人會는 十九日午後七時 太西館에서 開催하고 定款修正委員의 報告를 採擇하얏는데 同社의目的은 北米倉町에서

一、果實、蔬菜、鹽干魚、穀物의都賣
一、右를主要原料로하는 食料品의加工、製造、製造品의都賣

등이라하며 資本金百萬圓(四分一拂込)一萬七千株一般公募三千株로서 株式申込은保證金一株에 二圓五十錢식으로 六月一日부터 受付하야 六月末日까지로 決定하얏다는바 同社定款中主要한 項目은如左하다

一、會社存立期間=會社設立日부터 滿三十個年
一、必要하면支店을設置
一、取締役八人、監査役二人
一、株主議決權은 十株에一個 十一株以上은十株를增할때마다 一個를增加하고 그端數는 一個로함

地金銀消費 三百六萬圓

昭和十年中의 朝鮮의 地金銀消費는 合計三百六萬三千九圓에 達하얏는바 用途別로 如左하다 (單位圓)

金銀細工	
裝身具	一、八三三、三八八
携帶品	五一、三九八
裝飾	四六二、〇三三
食器	二一三、二〇三
室內裝飾	三四、〇八六
佩用品	五四、四四六
機械類	二、〇五四
滔類	三〇二
計	二、六四九、九〇四
齒科用金	
金	四〇七、九四四
銀	二、七九一
計	四一〇、七三五

中旬對外貿易 入超一千四百萬圓

【東京電話電通】大藏省發表=五月中旬 對外貿易概算調査는 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七一、四四八
輸入	八五、九二八
合計	一五七、三七六
入超	一四、四八〇
一月以降入超累計	二八六、〇五九

統制經濟의 限界 (二)

그러나 最近에잇서는 새로 事情이 또그우에 加添되엇다 그러나는 軍事上으로의 產業統制의 必要이다 石油業法、自動車業法案等은 그의 適合한 例이며 累累히 宣傳되는 電力統制와 如何도 亦是 이러한 傾向을띈것이라하겟다。此等事業은 特히 日本에잇서는 今後 急速한 發展을하지안흐면 아니될事情에 잇슴으로 統制經濟의 促進에 依하야 一方 制限을받는 點은잇스나 事業그것은 全體的으로는 今後의 發達이 期待되는 터이다 요컨대 財政上關係으로 統制經濟가 生하는것이며 卽 現下 馬場藏相의 聲明을 기다릴것도업시 歲出의 膨脹은 不可避의 事實이며 그膨脹되는 歲出을 支辨하기 爲하야는 增稅其他의 增收策과 公債增發이 當然豫想되는데 統制는 이두點으로 生하는것이다 于先 一方에서는 普通增稅가 增收의 中心이 되거나 專賣、國營等 國家管理的手段에 依하야 國庫의 收入을 圖하려는것이다

×

또 다음 增發되는 公債의 消化를 圖하기爲하야 公債의 强制的保有를 하고저 行政的手段을 講究하며 所謂 金融統制를 行하는 同時에 例컨대 事業會社의 配當을 制限하며 剩餘資金으로서 公債를 保有식히려는 것과가튼 方法도考慮되지 안흐면 안된다。또 統制는 貿易上에잇서서도問題된다。最近에잇서 貿易戰의 激化는 世界的으로 政府의 貿易助長 政策을 强化하고잇는데 特히 日本에잇서서 輸出貿易의 異常한 進出의 結果 各地에 日本品의 排斥運動이 이러나서 貿易統制의 强化를 더욱 緊要하게하는터이다

×

財界는 이러한 統制經濟의進展에 依하야 어떠한 影響을 밧게되는가 上記와가튼 諸點中에서 不況을 打開하려는意味의 統制經濟는 財界로서歡迎할것이나 아무 問題될것이 업슬것이다 그다음의 軍需關係事業에 關한것에 對하여도 同樣으로 그것이 新界의 發展을 助長하는것이만큼 念慮할것이 업슬것이오 貿易統制에 對하야도 國家의 手段方法에잇서는 論議가 잇슬것이나 全體的으로 貿易業界常時에 對應하야 그것을 打開하려는 것은 한便으로보면 當然한處置이라고하겟다。남은問題는 全然 財政的見地에서 生하는 統制인데 이에 對하야는 周知하는바와가티 이미만흔問題가 內包되어잇다。그러나 이에도 財政에 關聯되는 第一의 命題는 增收임으로 事業自體의 繁榮을 圖한다는것이 前提條件이된다。엇지 小食大失이아닐가? 그리고 公債消化의 點에對하야는 周知하는바와가티 長期的 政府의 低金利政策의 結果는 現在에잇서는 도리혀 公債가 너무消化되어서 困難한狀態로 日銀이 公債의 賣止를한 事實이 그것이다。公債를 消化시키기爲한 特別行政的又는 立法的手段等은 當面問題는아니다。그리고 低金利政策에 依한 公債의 消化가 大槪 一定한 限界에 達한때에 비로소 具體的問題로 드러가게 되는것이다 最近과가티 積極的低金利政策에 依하야 政府의 金融界에 對한 支配的傾向과 發展을 가르처서 統制經濟的傾向이라고 말하는者도 잇슬것이나 그것은 現下의 金融界에잇서서 政府의 財政이 大한 役割을 한다는 點으로부터 招來된 事實上結果이어서 國家權力의 法的增大인行政的方法에 依한 統制經濟는 實的으로 다르다。

×

當面의 統制經濟는 그와가티 全體的으로 아무 不安의 傾向이 업다 그것은 財政、經濟情勢自體의 推移에 隨하야 漸次로 發展될것으로 要컨대 統制經濟에 對한認識은 그現象形態에 拘泥될것이 아니라 그의實體와 實現過程에 對하야 正確한認識을 가질必要가 잇는것이다 (終)

朝鮮產生糸 橫濱、神戶經由輸出 製系協會에서承認

朝鮮製絲協會에서는 十九日午後四時부터 役員會를열고 日本中央蠶絲會의 申出인 生絲直輸賣의 間接直接 卽朝鮮產生絲의橫濱神戶經由 輸出에對하야 協議한結果 이申出을 承認하기로거이 意見의一致를 보아 또今月末열릴 總會에 附議한후正式으로 回答하기로되엇다 그리고이問題로말하야 十九日入京한 小田萬藏氏(旭絹專務)에對하야서는 同日役員會後會見하야 그旨를 回答하얏다

農產關係 新規豫算

總督府農產關係十一年度 實行豫算新規事業費는 合計六十六萬四千九百圓으로 費目別은 如左하다 (單位圓)

一、田作優良品種育成에關한經費(試驗費)	一〇、九五六
二、土性調査費用	九一、七八二
三、米穀統制에關한經費	一九三、〇四四
四、第二次自給肥增產計劃	一六八、四九六
五、田作改良增殖計劃의擴張	六三、七五〇
六、棉花奬勵費	四八、七〇〇
七、耐冷作物增殖試驗	一〇、二〇〇
八、製繭人件費	四六、八四二
九、製繭檢査所費	一七、五〇〇
十、農試及土性調査費	一三、六三〇

銀行支店飽和 財務局實情調查結果

地方經濟의 伸張에件하야 銀行의 地方支店新設이 採續하는狀況에잇슴으로 總督府財務局에서 實情을 調査한바에依하면 朝鮮의 府制施行地十七都市에는 勿論 各銀行의 支店設置가잇고 邑制實施의 五十一邑中四十八個所에는 各히 銀行支店의 設立을보아 邑中 銀行設置가업는것은 黃海道兼二浦、慶南 三千浦、咸南惠山鎭의 三個所에 不過하다 그리고 面에잇서 銀行의 設置는 三十七個面에 達하야 大體에잇서 銀行으로서는 設置의 飽和點에 達한듯하다

鏻油肥水組 聯合會認可

朝鮮鏻油肥製造水產組合聯合會는 일즉이 總督府에 創立認可申請中이든바 五月十九日付로서 正式으로 創立認可가되엇다 聯合會의 理事長은 西本總督府水產課長이 兼任하고 常任理事는 水產課囑託上山正樹氏가 就任하얏다 第一回總會는 來六月六日京城水產會館에서 開催되는데 事業方針 豫算等의 諸項을 協議할 豫定이라한다

京春鐵道 殖銀中心 林理事社長候補

目下 設立計劃中의 京春鐵道會社(資本金一千萬圓)에 對하야서는 總督府의 慫慂에依하야 殖產銀行이 進出하기로되어 大半의株를 引受하게 되엇는바 創立委員長에는 同行의 林理事가 當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同社創立後 林理事는 明年八月의任期滿了를 기다려 社長으로 轉出하리라고 보이며 林理事의後任에는 現財務局長 林繁藏氏가 相當히 優遇되어 殖銀에 드러갈模樣이라한다

取引停止 (五月十六日)

精米業 京城府林町十六番地 金在八

○ 肥料統制法도 衆議院 通過
○ 朝鮮도 制令을 發布하야 兩地協調로 價格水平化、地域的 獨占에 依한 不當한 吊上이 업게 하겟다고
○ 말만이라도 우선 賀意를表하고 두고 보자
○ 朝鮮의 銀行支店은 飽和點에 達햇다고
○ 너무 汎濫하면 도리어 地方發展을 害칠 念慮 不無

商況 (二十日)

株式 東新漸進 上向

前場伸惱 議會後期待는不表나 積極買는 依然躊躇하야 伸惱이엇스니 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五十錢高인 百三十六圓六十錢 日產十錢低인七十三圓十錢 北紙…

恐怖地下潛在 議會後果如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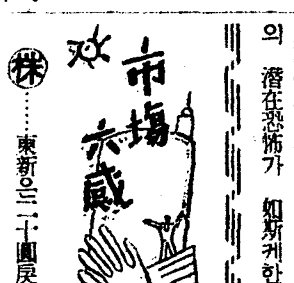
株式市場에 投機資金이 涸渴된것은 事實이나 日本內의 議場上高를보면 자못旺盛하야 株式市勢에 賭博的色彩가 漸次濃厚하고 理論만가지고 强弱을말하게된것을 證코잇다한다 二、二六事件以後의 議會不安 財界不安의 潛在恐怖가 如斯케한것이라 말이잇다

前上까지壽命

東新의步一步上進에對하야 軟派는上高를悔하고 煎上할機會가업서 煎이작구延長되어가며 伸力이오한때문에買氣力이안생기는것이事實이나 結局어듸서던지 買込한軟派의 總煎上이 잇기까지는上市勢의壽命이 잇슬것이라는말이잇다

實物前場取引

取引高 一四〇枚 ▲證券金融 [illegible] ▲新興產業 [illegible] ▲旭石油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에라피이新 [illegible] ▲日本曹達新 [illegible]



(株)……東新은二十圓戾인 百三十九圓三十錢을 常識的으로 目標期間에잇스리라고 期待▲비록 伸氣는沽卓치못하지만 百四十圓소리는 別段惡材料업는限 잇슬것으로볼수밧게 ▲거의 一致된 議會後活躍이 果然잇슬지는 尙疑問▲增稅에도 와르르 하지나안흘가? 이런念慮로 自重하는바큼 投機의 危險性이 업슬것도 갓기는하다마는……▲中旬貿易入超 千四百四十八萬圓으로大激增 貿易惡化의 悲觀이 나어올지?

(米)……▲今年은農家의實情又는平均賣의方針을 取하기때문에 第二出盛期에도 依然賣出이閑散하야 그러저러 農繁期에入하고말엇다 ▲그러고政府米의拂下도 隨意의申請이逐至할 에도 拂下를斷行하지아니함을 보면 拂下를한다하더라도 時期尙早로認하는모양 ▲그러면 압헤남아잇는것은 高米價뿐인가하노라 ▲日本內地市場으로서는 朝鮮의植付如何와 臺灣米의今後移入如何를따라 大勢左右될것으로 當分傍觀하는光景、果如何?

東京國債奔騰

【東京電話電通】議會에對한 安心人氣와 西側의猛烈買로 米貨高呈奔騰되고 市況은强調를呈하얏다

甲五分利	一〇〇、七〇
一回四分利	一〇二、七〇
二回四分利	一〇二、七〇
佛貨四分利	一九七、八〇

米期 緩徐裡에 漸騰

前場少强 昨後場敗地卅三…

今日財界 (二十日)

◆米 仁川正米 大阪期米 京城正米 ◆市中金融 ◆株 朝新 東新 日產 大阪綿絲 大阪人絹 大阪砂糖 [illegible]

增稅不安再現 買氣抑壓傾向

【大阪電話商通】增稅의內容도議會開會와共히 漸次具體化되어再次이方面으로부터 發展될 不安이잇슴과 最近의相場動不良인點으로 買方前途에不安을 生하야買氣가減少된傾向이보인다

▲北濱情報=【大阪電話】最近帝人新東을 買한古勝은短期新東을 受株하고 鐘紡을 賣하야 玉을 縮方針을取코잇다 ▲東拓은今期三十萬圓의 增收이나 無配當으로 弱氣說이오 [illegible]

後場上進

後場은 東新百三十圓四十錢에 올느고 其他는 强調로 推移되어 [illegible]

東株今期業績良好 配當은据置할모양

【東京電話商通】東株五月十五日現在今期業績은 營業日數百三十三圓에對하야 賣買高는 株式四千九百八十五萬五千株 債券七億二千三百四十五萬九千圓으로 前年同期間에比하야 [illegible]

鍾新高價買警戒?

[illegible]

後場好勢

[illegible]

腾勢의中途! 結局은上勢?

昨年同期에는 政府米二百萬石의 大量拂下를 發表하야 一大瓦落을招한바이엇스나 今年은 政府의所有米가 昨年의約一千萬石보다 約四割減少인 六百六十萬石에不過하야 無理히 拂下할것으로 생각되지안흘뿐아니라 [illegible]

高價時代難免 四圍情勢보면

今年은 二年續凶作後인만큼 日本內地及朝鮮을 不問하고 農家의方針은 大同一體로 賣惜하고잇슴으로 더욱이 凶作인日本內地의米界事情은 中間商人의 手中에는 實物一巡으로 持米皆無의狀態를 呈하고 딸아서 集散地의在米가 稀薄하야 米價는 低落하려야低落할條件이어다 아무리凶作이라할지라도 產地의在米가 아주精米不足의極度에達한 바는아니나 그러나 大體政府米의 拂下를 申請하는狀態임으로 米價는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仁川不變

先約側의買埋가 散見되는程度로 新規取引은殆無이오 場面은極度의閑散을 呈한 丸仁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五錢

釜山不動

日本內地注文은 依然 中絕狀態이나 一般賣腰强硬으로 市況下蓮氣味이오 今朝는 精米側에 上級品의 取引이 九百叺程度잇는 模樣이엇다 (叺) 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六十錢

大邱焦付

實需買行不振에 다가 定期의 保合을보고 依然히 人氣不立이오 罷配는 [illegible]

京城閑散

賣方形勢傍觀으로 極度로 積極味를缺하야다 丸仁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丁

群山少康

活潑한賣氣는 업스나 高價함으로 人氣는 少康에 回復이나 極히閑散에終始하얏다 兼ㄱ三等三十圓二十五錢四等三十圓〇五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木浦保合

一般傍觀的態度로 依然無活氣商狀을 不改하고 市況은 前場에 保合이엇다 三等三十圓四三十錢 四等三十圓十錢一等白米十三圓丁

堂島前場賣買

▲賣方=東京側 地場弱氣 ▲買方=地場 地場强氣側

各地正米

[illegible]

金融 (二十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市中純金價 ◆金買入價 ◆京城市中金銀價 ◆對外爲替 [illegible]

米穀 (二十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二十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鑛油冲價 ◆鑛粕冲價 ◆大阪豆粕期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二十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限定代引日步 ◆東京株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二十日)

◆朝取期米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東京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商品 (二十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米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朝米取株 光 東益復商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代表電話本局②五一八六番